

濟州道 中 · 高等學生의

統一安保意識에 關한 調查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金 致 洪

指導教授 高 性 俊

1983年 月 日

金致洪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金 恒 元



副審

李 德 錫



副審

高 成 준



1983年 月 日

# 目 次

## I. 緒 論

1. 問題의 提起 ..... 11
2. 研究目的 및 範圍 ..... 12
3. 研究方法 ..... 12

## II. 理論的 背景과 研究內容

1. 中·高等學校의 統一安保教育 現況 ..... 16
2. 統一安保에 대한 既存研究 現況 ..... 22
3. 教科書內容 分析 ..... 24
4. 分析을 爲한 概念模型 ..... 26

## III. 中·高等學生의 統一安保意識 分析

1. 共產主義 ..... 27
2. 北 韓 ..... 36
3. 統 一 ..... 44
4. 安 保 ..... 58

## IV. 結論：要約 및 提言

- 參 考 文 獻 ..... 79
- 附 錄 ..... 81
- 英 文 抄 錄 ..... 89

## 表 目 次

〈表 1〉 調査道具의 構成內容 및 問項數 .....	13
〈表 2〉 學校別 質問紙 實施對象者 數와 回收 現況 .....	14
〈表 3〉 背景變因別 標集人員 .....	15
〈表 4〉 特別 活動 內容 .....	22
〈表 5〉 教科書內容 分析 範圍 .....	25
〈表 6〉 教科書에 나타난 統一安保 關係 內容 .....	25
〈表 7〉 統一安保意識의 概念模型 .....	26
〈表 8〉 共產主義에 대한 知識源의 全體 反應 結果 .....	28
〈表 9〉 共產國家의 政治的 特徵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	28
〈表 10〉 共產國家의 經濟現實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	28
〈表 11〉 共產國家의 社會的 特徵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	29
〈表 12〉 共產國家의 人間觀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	29
〈表 13〉 共產主義가 우리 民族傳統에의 適合性 與否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	31
〈表 14〉 共產國家에 대한 感情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	32
〈表 15〉 民主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	34
〈表 16〉 共產主義 戰略에 대한 警戒心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	35
〈表 17〉 北韓의 政治現實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	37
〈表 18〉 金日成 偶像化 程度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	37
〈表 19〉 北韓의 經濟現實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	38
〈表 20〉 北韓의 ‘千里馬運動’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	38
〈表 21〉 北韓의 教育目標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	38
〈表 22〉 北韓의 靑少年에 대한 同情心의 全體 反應 結果 .....	39
〈表 23〉 北韓이 우리 보다 잘 살 수 있을 可能性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	40

〈表 24〉	北韓에서의 生活 可能性 與否에 대한 全體 反應 結果	41
〈表 25〉	北韓을 國家로 認定 與否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42
〈表 26〉	北韓의 宣傳에 대한 不信感의 全體 反應 結果	43
〈表 27〉	統一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45
〈表 28〉	統一의 沮害要因에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47
〈表 29〉	우리 政府의 統一方案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48
〈表 30〉	統一問題解決 擔當者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48
〈表 31〉	平和統一의 先行條件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48
〈表 32〉	北韓이 主張하는 所謂( 僞裝 ) ‘平和統一’에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50
〈表 33〉	統一時期의 展望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52
〈表 34〉	統一 後의 狀態에 대한 感情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53
〈表 35〉	南北交流에 대한 期待感의 全體 反應 結果	54
〈表 36〉	北韓의 統一方案에 대한 批判能力感의 全體 反應 結果	55
〈表 37〉	統一에 대한 意志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56
〈表 38〉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度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57
〈表 39〉	安保의 一般的 認識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60
〈表 40〉	北傀의 南侵準備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61
〈表 41〉	自主國防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61
〈表 42〉	南北 軍事力 比較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62
〈表 43〉	北傀 南侵 時 中·蘇의 支援態度에 대한 全體 反應 結果	63
〈表 44〉	靑少年의 安保意識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64
〈表 45〉	北傀의 再侵 可能性 與否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66
〈表 46〉	核武器保有 與否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68
〈表 47〉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에 대한 信賴感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69
〈表 48〉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度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71
〈表 49〉	北韓의 武力南侵 時 行動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72

# I. 緒 論

## 1. 問題의 提起

韓半島의 分斷은 韓民族의 意志나 所願과는 관계 없이 第2次世界大戰의 處理過程에서 밖으로 부터 강요된 民族의 悲劇이다. 이와 같은 타율적 分斷狀態를 종식시키고 統一을 성취해야 하는 것은 民族의 念願이자 궁극적 國家目標이다.<sup>1)</sup> 우리 民族은 餘他 分斷國家의 境遇와는 달리 歷史나 民族이라는 側面에서 그 根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永遠히 分斷된 狀態에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世界赤化革命의 一環으로서 韓半島의 共產化를 생각하는 北韓 共產集團의 教條的 立場은 統一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北韓 共產集團의 武力에 의한 統一企圖는 國際聯合을 통한 自由友邦의 決定的 反擊에 부딪혀 挫折된 後 그들은 繼續 韓半島에 緊張을 造成시켜 왔으며 특히 近來에 와서는 變轉하는 國際情勢에 便乘하여 우리 安保에 새로운 局面을 惹起시키고 있다.<sup>2)</sup>

더우기 分斷의 歷史는 極甚한 民族의 異質化를 招來케 하였으며 이로 因해 이제 南北社會는 모두 個性을 가진 서로 獨立된 社會로 굳어져 支配的 理念, 價値秩序, 社會構造, 生活樣式 等 모든 點에서 달라지고 있다.<sup>3)</sup>

이러한 諸般現實들은 우리에게 同族相殘의 悲劇을 事前에 防止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며 民族의 念願인 民族統一을 앞당겨야 한다는 必然性으로 浮刻되고 있으며, 이와 關聯하여 將次 分斷祖國의 統一을 爲한 主役世代가 될 中·高等學生들을 對象으로 統一安保意識에 關한 綜合的인 調査分析의 必要性이 提起된다.

1) 朴俊弘 編, 韓半島의 平和와 安保 (서울: 博英社, 1978), p.518.

2) 金俊輝, 南北韓 統一問題와 그 周邊 (서울: 一潮閣, 1979), p.83.

3) 李相禹, “統一視覺에서 본 民主發展,” 梁好民外 編, 民族統一論의 展開 (서울: 形成社, 1982), p.17.

## 2. 研究目的 및 範圍

이와 같은 見地에서 本 研究는 中·高等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統一安保에 대한 意識을 把握하는데 도움을 줌은 물론 앞으로 統一安保教育을 改善하는데 있어 그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하는 目的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目的下에 濟州道 內에 있는 中·高等學生으로 그 範圍를 限定하여 現在 中·高等學校에서 實施되고 있는 統一安保教育의 現況을 살펴 본 다음, 分析概念模型 및 質問紙 製作을 위해서 既存研究 現況과 教科書 內容을 分析하려고 한다.

그러나 本 研究는 資料蒐集過程에서 高等學校 3學年이 除外 되었고, 調査時間 및 調査者가 달라 調査條件의 均一化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制限點을 가지고 있다.

## 3. 研究方法

本 研究目的을 위한 研究方法으로는 文獻研究와 記述的 調査研究 方法을 同時에 採擇하였다. 文獻研究를 통해서는 中·高等學校의 統一安保教育現況을 살펴보고, 分析概念模型 및 質問紙製作을 위해서 統一安保에 대한 既存研究現況과 中·高等學校의 道德 및 國民倫理 教科書 內容 등이 檢討·整理되었다. 記述的 調査研究에 의해서는 質問紙를 통해서 나타난 反應을 中心으로 事實發見(fact-finding)을 하기 위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研究方法에 대한 道具, 標集 및 資料處理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道 具

統一安保意識의 概念模型(P.16 <表7>參照)에 맞추어 中學校의 道德과 高等學校의 國民倫理 教科 및 先行研究를 參考로 하여 測定道具를 製作하였다. 質問紙 問項을 行動次元과 內容次元別로 製作하여 數回の 分析과 檢討 等 塚備調査(Pilot Study)를 거친 後 威德 綜合 高等學校 1학년 男·女學生 各 60 명씩 120명을 대

상으로 事前檢査(Pretest)를 하여 最終적으로 <表 1>와 같이 모두 42개 問項을 確定하였다.

<表 1> 調查道具의 構成內容 및 問項數

行動次元 內容次元	認 知	情 意	意 志	計
共 産 主 義	5	2	2	9
北 韓	5	2	3	10
統 一	6	3	3	12
安 保	5	4	2	11
計	21	11	10	42

統一安保에 대한 認知水準의 問項은 閉鎖式 質問型(Closed questions)으로, 情意와 意志水準에 該當되는 問項은 各 問項 마다 5 단계의 反應答紙가 주어지는 Likert - type 을 使用하였다. 卽 '확실히 그렇다'에 5점, '그런 것 같다'에 4점, '잘 모르겠다'에 3점, '아닌 것 같다'에 2점, '확실히 아니다'에 1점으로 配點하여 反應結果를 點數로 換算하였다. 따라서 點數가 많을 수록 肯·否定的 傾向이 높음을 뜻하며, 肯·否定的 基準은 대체로 3점을 中心으로 左右傾向性을 가지고 全體적으로 解釋하였다.

## 2) 標 集

標集方法은 集落標集(Cluster Sampling)에 의한 一段抽出法(single-stage-cluster design)이다. 濟州道 中·高等學生의 母集團을 現實적으로 代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市, 邑, 面 等の 地域別로 高르게 選定 되도록 하였으며, 市地域에서는 男·女 中·高等學校 各 1개교씩 4개교, 그리고 邑과 面地域에서는 男·女 共學인 中·高等學校 各 1개교씩 4개교 等 都合 8개교를 選定하여 各 學年마다 60名씩(男·女 共學인 경우는 男·女 各 60명씩 임) 1,800명을 對象으로 하였다.

質問紙 實施方法은 研究者가 選定된 學校에 直接 찾아 가서 校監선생님 또는 倫



理主任 선생님께서 本 研究의 目的, 趣旨 및 質問紙 實施方法을 說明하고 擔任선생님 等의 協助를 얻어 實施한 後 回收하였다.

標集은 1983年 2월 7일 부터 2월 10일 사이에 實施 回收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質問紙 方法이 갖는 短點인 各 問項에 대한 率直性和 誠意가 問題인 바 이를 補完하기 위해 認知水準에서 1개 問項( 11번과 27번 ), 情意水準에서 1개 問項( 29번과 49번 ) 等 2개 問項을 使用하여 그 反應이 다른 境遇 分析對象에서 除外시켰다.

質問紙의 實施結果는 <表 2>에 提示된 바와 같으며, 回收된 數는 1,742명이 었다. 標集된 1,742명 中 質問紙의 全 問項에 反應을 하지 않았거나 ‘誠意度檢證問項’이 같지 않은 것을 除外하고(488명), 實際 分析對象으로 取扱된 標集數는 1,254명이 었다. 따라서 最終的 分析對象으로 選定된 標集의 背景變因別 數는 <表 3>에 提示된 바와 같다.

<表 2> 學校別 質問紙 實施 對象者數와 回收現況

地 域	學 校 別	實施對象者數	回 收	回 收 率 (%)
丁 市	O 中學校	180	180	100
	J 女子中學校	180	170	94.4
	O 高等學校	180	120	100
	J 女子高等學校	180	119	99.2
K 邑	S 中學校	360	341	94.7
	S 高等學校	240	240	100
P 面	P 中學校	360	346	96.1
	P 商業高等學校	240	226	94.2
合 計	8個 中·高等學校	1,800명	1,742명	96.8

### 3) 資料의 處理

蒐集된 資料의 分析은 서울大學校 컴퓨터 센터에서 電算處理 되었으며, 本 研究에 使用된 統計値는 平均(M), 百分比(%),  $\chi^2$ 檢證을 使用하였다.

資料의 分析 및 提示 方法은 認知水準에서는 全體 및 背景變因別 各 集團 間에

〈表 3〉 背景變因別 標集人員

背景變因	變 因 区 分					計	
	性 別	男 650	女 604				
學 年 別	中1 248	中2 230	中3 247	高1 273	高2 256	1,254	
居 住 地 別	市 442	邑 494	面 318			1,254	
家長의 職業別	公務員 116	會社員 103	商 業 182	農 業 785	軍 人 13	無 職 55	1,254
宗 教 別	佛 教 432	基督教 205	其他宗教 55	無 教 562		1,254	

百分比(%)를 가지고 各 問項에 대한 應答者의 反應傾向을 把握하였다. 그러나 情  
意와 意志水準에서는 平均(M)과 百分比(%)를 가지고 應答者의 反應傾向을 把握하였  
이며, 5 단계의 反應分布를 대체로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것 같다'를 합쳐  
'그렇다'로, '아닌 것 같다'와 '확실히 아니다'를 합쳐 '아니다'로 合算 提示  
하여 解釋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背景變因別 各 集團間 差의 有意度檢證은  
 $\chi^2$ 檢證을 適用하였고, 集團間에 差異가 거의 없는 問項에 대해서는 全體反應結果  
만 提示 하기로 하였으며 標集人員數가 아주 적은 軍人(13명)은 分析에서 除外  
하기로 하였다.

## II. 理論的 背景과 研究內容

### 1. 中·高等學校의 統一安保教育 現況

#### 1) 統一安保教育의 必要性

統一安保教育의 必要性을 統一安保에 대한 一般의 概念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統一安保는 統一과 安保의 複合概念인 바, 먼저 統一이란 行政區域과 統治機構를 單一化하는 것이라는 地理的·政治的 概念과 民族과 社會를 同質化 시키는 것이라는 社會的·文化的 概念이 있을 수 있는데, 前者가 外形統一이라면 後者は 內面統一이 될 수도 있다.<sup>4)</sup> 그러나 우리가 所望하고 追求하는 統一은 民族社會의 統合이며 單純한 行政領域의 單一化라는 外形的인 單一國家形態를 갖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sup>5)</sup> 이렇게 볼 때 統一은 民族統一의 概念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北韓의 赤化威脅을 勘案할 때 結局 民族의 生存을 위한 方法이라는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

다음 安保란 廣意로 보면 『外部的인 威脅으로 부터 內部的인 價値를 보호할 수 있는 國家의 能力』이라고 한다.<sup>6)</sup> 그러나 韓國의 境遇 대체로 安保의 概念은 自主國防의 概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7)</sup> 이러한 自主國防은 國力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國力은 國家의 發展을 前提 할 때 國家의 發展은 國家成員(우리 民族)의 發展이므로 安保는 民族의 發展을 前提로 하는 概念인 것이다. 따라서 統一安保란 우리 民族의 生存과 發展을 위한 우리 民族의 絕對使命이며, 우리 社會의 社會正

4) 閔丙天, “南·北韓 關係와 統一問題,” 國民倫理 研究 第 12 號(1981), p.218.

5) 李相禹, “南北統一의 基本問題,” 梁好民外編, 前揭書, pp.423 ~ 424.

6) 朴俊弘編, 前揭書, p. 8.

7) 李廷植(稿), “超黨의 安保의 實現,” (國家安全保障會議編, 韓國安全保障論叢 第 4 輯, 1972), p.23, 金順圭, “安保意識에 대한 大學生과 勤勞者의 反應 研究,” 慶南大學「論文集」 第 4 輯, 1977, p.130 에서 再引用.

義의 根本인 것이다.<sup>8)</sup>

이와 같은 統一과 安保를 위한 意識을 깨우치고 그 理論的 基礎를 다지는 教育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教育보다도 우리의 生存權에 直結되는 重要的 課題이며, 分斷現實에 대한 冷徹한 認識과 統一을 위한 生存權 確保 그리고 平和統一力량의 培養을 위한 슬기와 鬥의 必要性을 前提로 할 때 統一安保教育의 意味와 重要性은 뚜렷하게 浮刻될 수 있다.<sup>9)</sup> 더욱이 中·高等學生들은 分斷祖國의 統一을 위한 主役世代가 된다는 點에서 그 重要對象이라고 할 수 있으며, 戰爭未經驗世代라는 點에서 共產主義의 挑戰과 威脅要因에 對한 警覺心이 薄弱한 것이 事實임을 認定할 때 學校에서의 統一安保教育의 重要性은 더욱 強調된다.

## 2) 統一安保教育의 經過

中·高等學校에서의 統一安保教育은 反共教育이라는 名稱으로 中學校의 道德과 高等學校의 國民倫理 教科에서 實施되고 있다. 이와 같은 反共教育에 대한 重要性이 強調되기 始作한 것은 1950년대의 6·25 動亂이라는 民族的 悲劇에 의한 反共思想의 生活化가 이루어질 수 있는 韓國의 特殊한 歷史的 經驗이 이루어지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時期에 分斷된 祖國을 統一하고, 外侵으로 부터의 國土 防衛를 위해 國防教育이 強調되었으며 學校教育에 있어서도 反共教育의 必要性이 切實해졌다. 더욱이 理想을 追求하며 感受性이 銳敏한 中·高等學生들에게는 反共思想의 徹底한 認識을 시켜야 했으므로 思想的 善導와 民族意識의 鼓吹, 愛國精神의 發揮 等を 目的으로 反共教育이 行해졌던 것이다.<sup>10)</sup>

1960 년대에 와서는, 1955 년에 改訂되었던 教育課程은 그동안의 狀況 變動에 따라 그 妥當性이 減少되어 時代的 要請이 더욱 뚜렷이 反映되는 教育課程 再改訂의 期待에 副應하기 위하여, 中學校의 境遇 1963 년의 教育課程 改訂 時에는 1955 년에 改訂된 教育課程의 未備點을 補完한 ‘教育課程令’을 制定·公布하여 所謂

8) 趙柱泰, “統一安保問題와 精神戰力,” 統一政策 第3卷 第3號(1977), pp.60 ~ 61.

9) 金京雄, “統一安保教育의 새로운 認識,” 統一安保教育 第1輯(1982), p.56.

10) 柳炯鎮·姜煥國編, 國民倫理教育概論(서울: 螢雪出版社, 1982), pp.76 ~ 81.

새 教育課程이 마련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教科活動, 反共·道德生活, 特別活動으로 三分하고, 反共·道德 時間을 適當 1시간으로 規定하였다. 國民教育憲章 制定·公布로 인한 1969년 教育課程의 改編作業에 있어서는 適當 1시간이던 反共·道德을 各 學年이 共히 2시간으로 크게 늘려 實施하게 되었다.<sup>11)</sup> 여기에서 反共·道德生活로 名稱을 붙인 것은 이를 教科와 같은 性格으로 보지 않고, 特別 實踐을 強調하여 이를 生活面에 反映시키자는 精神에서 取한 것이며, 舊課程에서의 道義教育 또는 道德을 反共·道德으로 兩分한 느낌을 주는 表現을 한 것은 舊課程에서 道義教育 領域의 하나로 包含시켰던 反共教育의 比重을 더욱 뚜렷하게 하자는 意圖에서였다.<sup>12)</sup> 高等學校에서는 反共·道德生活를 特設하지 않고 專門教育을 받은 教師로부터 體系的 教授의 必要下에 反共은 一般社會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sup>13)</sup>

1970년대의 教育政策의 強調은 1960년대 以後에 漸次 浮刻되어 온 民族的 主體性的 強調과 함께 時時刻刻으로 變動하는 情勢下에서의 韓國의 安定된 發展을 위한 國家的 必要에 應하기 위해 安保教育에 주어졌으며, 1971년 부터 每年 安保教育體制的 強化는 文教部의 重點的인 獎學目標로 採擇되었다.<sup>14)</sup> 우리나라는 ① 民族의 나아갈 바를 찾아 歷史的 使命感을 깨닫고 國力을 組織化하고 길러 平和적으로 南北을 統一하고 ② 急激한 社會·文化的 狀況의 變化에 對處하며 ③ 産業化에 따른 人間疎外 問題에 對處하기 위하여 1973년 教育課程을 改編하게 되었다.<sup>15)</sup> 그 基本方針으로서는 國籍있는 教育을 指向하여 國民的 資質 涵養, 人間教育의 強化, 技術教育의 刷新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國民的 資質 涵養에서는 첫째, 國家觀의 確立으로 反共意識을 鼓吹하고 統一에 對備하는 總力安保態勢確立, 둘째, 우리의 實情에 알맞는 民主主義의 實現과 새마을 精神의 具現으로 國民總和를 이루는 일,

11) 曹點煥, “韓國國民倫理教育診斷,” 國民倫理研究 第 15 號 (1983), p.61.

12) 文教部, 國民學校 教育課程 解說 (서울: 教學圖書(株), 1963), p.446.

13) 大韓教育聯合會, 教育課程 (서울: 大韓教育聯合會, 1969), p.88.

14) 柳炯鎮·姜煥國編, 前掲書, p.99.

15) 教學圖書編輯部編, 새綜合教育課程 및 解說 (道德·社會) (서울: 教學圖書(株), 1977), p.12.

셋째, 傳統的인 美風良俗을 繼承 發展시키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sup>16)</sup>

특히 이번의 教育課程 改編에서 中學校는 反共·道德生活 領域과 每週 2시간의 反共·道德 時間을 합쳐 道德科라는 教科로 獨立시켰다.<sup>17)</sup> 高等學校에 있어서도 1971년에 教育法 施行令이 改正되면서 國民倫理 教科가 社會科로 부터 獨立된 教科로 設定되었으며, 國民倫理科 教科課程도 1973년 全面的인 改正이 이루어졌다.<sup>18)</sup>

1983년 現行 教科書도 1981년에 改定·公布된 것이며, 中學校의 境遇 教育課程 構成 方向은 健全한 心身의 育成, 知力과 技術의 培養, 道德的인 人格의 形成, 民族共同體 意識의 高揚에 力點을 두고 있다. 道德科의 改定된 內容을 보면 ①生活領域의 再調整 ②一般目標의 再陳述 等인데, 生活領域은 過去 教育課程에서는 다섯 가지 生活領域으로 나뉘어졌으나 이 가운데 禮節生活領域은 社會生活領域이나 國家生活領域에 包含시키고 있으며, 反共生活領域 역시 하나의 生活領域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反共教育은 現實的인 韓國社會의 當面課題이고, 이를 體系的으로 實施해야 할 必然的 要請이 있기 때문에 個人, 社會, 國家生活領域에 그 內容을 關聯시키되 重點的이고 體系的인 指導를 위하여 反共生活領域은 그대로 存置시켰다. 따라서 調整된 生活領域은 ①個人生活領域 ②社會生活領域 ③國家生活領域 ④反共生活領域 等으로 되어 있다.<sup>19)</sup>

高等學校 國民倫理 教育課程은 1973년 教育課程의 全面的인 改定 後 10여년이 지난 後에 改訂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教科가 지닌 知識體系의 變化에 副應한다는 側面도 있으나, 이 보다는 社會的 要求가 앞서고 있음을 否認하기 어렵다. 따라서 國民精神教育의 體系化, 全人教育의 強化 및 國民倫理教科 自體의 要求 等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教育課程의 改訂은 여러 方向에서 論議될 수 있으나 國民精神教育의 涵養의 強調를 위해 共同體意識의 涵養과 體系的인 反共教育을 試圖하였으며, 體系的인 反共教育을 위해서는 共產革命 이데올로기의 批判과 더불어

16) 李榮德外, 國家發展에 대한 教育의 寄與(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76), pp.59 ~ 60.

17) 教學圖書編輯部 編, 前掲書, p.179.

18) 洪性道, “高等學校의 國民精神教育概觀 및 發展方向,” 國民倫理研究 第 14 號 (1982), p.199.

19) 韓國教育開發院, 中學校 道德 教師用 指導書, 1982, pp.7 ~ 11.

共產主義理論을 體系的으로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涵養하는데 主力하였다.<sup>20)</sup>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中·高等學校에서의 反共教育(統一安保教育)은 韓國的인 要請에 의하여 強調되기 始作해서 時代的·社會的인 要求에 副應하고, 또 한 그 內容을 着實히 다듬어 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겠다.

### 3) 統一安保教育의 活動 內容

中·高等學校에 있어서의 統一安保教育은 餘他 教育和 마찬가지로 教師가 主體가 되고, 教育對象은 教師까지를 包含한 全 學生이 되며, 教育活動은 教科活動과 特別活動으로 나누어 實施되고 있다.

#### (1) 教科活動 內容

教科活動은 主로 中學校의 道德과 高等學校의 國民倫理 教科를 통하여 實施되고 있는 바, 本 研究의 目的에 비추어 反共生活領域에 密接한 關聯이 있는 內容만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中學校<sup>21)</sup>

道德의 教科活動 目標를 보면, 日常生活에 必要한 道德的 原理를 스스로 깨달아, 實踐하며, 國家發展과 祖國統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기른다는 前提下에 民主主義의 優越性을 認識하고 北韓共產集團의 挑戰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祖國의 民主的 平和統一에 이바지 하게 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各 學年 目標가 提示되고 있는데, 1학년에서는 國土分斷의 悲劇, 北韓共產集團의 蠻行과 北韓의 現實을 올바르게 把握하여 우리 民主體制의 優越性을 깨닫게 한다. 2학년에서는 共產社會의 現實을 알고 民主體制의 優越性을 깨달아, 共產主義의 挑戰을 粉碎하려는 意志를 가지게 한다. 3학년에서는 北韓共產集團의 赤化野慾을 粉碎하고 民主主義의 理念에 立脚한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바르게 認識하여, 祖國統一에 寄與하는 態度를 가지게 한다고 하고 있다.

20) 韓國教育開發院, 高等學校 國民倫理 教師用 指導書, 1982, p.7.

21) 文教部, 中學校 教育課程(서울:大韓教科書(株), 1982), pp.10~14.

이러한 教科目標과 各 學年目標을 實踐할 內容을 보면, 1 학년에서는 北韓의 現實이라는 題目下에 ① 國土分斷의 原因과 教訓 ② 北韓共產集團의 政治現實 ③ 北韓의 經濟現實 ④ 北韓의 社會·文化現實 等이며, 2 학년에서는 共產社會의 現實이라는 題目下에 ① 共產社會의 特性 ② 共產國家의 侵略政策 ③ 共產國家의 侵略事例와 그 教訓 ④ 共產圈의 分裂 等이다. 3 학년에서는 平和統一의 意志라는 題目下에 ① 統一의 念願과 統一의 意味 ②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③ 北韓共產集團의 赤化野慾 ④ 民主的 平和統一과 우리의 姿勢 等으로 되어 있다.

나. 高等學校<sup>22)</sup>

國民倫理의 教科活動 目標을 보면, 우리 民族의 文化的 傳統과 國家現實에 對한 理解를 바탕으로 國家社會 發展과 祖國統一에 寄與할 수 있는 健全한 價直觀을 가지게 한다는 前題下에 共產主義의 挑戰을 克服할 수 있는 思想의 力量을 길러 民主的 平和統一의 信念을 굳게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目標에 따라 祖國守護와 平和統一의 題目下에 ① 共產主義의 理論과 現實 ② 國際情勢와 韓半島 ③ 北韓社會의 特性 ④ 北韓共產集團의 侵略政策 ⑤ 우리들의 統一政策 ⑥ 國家安保와 우리들의 使命 等を 그 實踐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教科活動은 中學校에서는 適當 2 시간, 高等學校의 境遇는 6 單位로 適當 1 시간씩 實施되고 있다.

(2) 特別活動 內容<sup>23)</sup>

特別活動 內容에 있어서는 中學校와 高等學校가 비슷하므로 高等學校의 內容만을 <表 4>에 提示하기로 한다.

22) 文敎部, 高等學校 教育課程 (서울: 大韓敎科書(株) 1982), pp.14 ~ 16.

23) 洪性道, 前揭論文, p.206.



〈表 4〉 特別 活動 內容

活 動 區 分	內 容	備 考
行 事 教 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統一安保教育〉</li> <li>· 글짓기, 웅변, 음악, 미술, 연극대회</li> <li>· 標語짓기, 포스터 그리기</li> <li>· 講演會, 討論會, 座談會, 6.25 體驗談 듣기</li> <li>· 反共슬라이드, 영화관람</li> <li>· 前方部隊, 호국유적지, 反共館, 현장학습</li> <li>· 1日勝共學校入校</li> <li>· 反共圖書 讀後感 發表會</li> <li>· 記念行事</li> </ul>	6.25 前後 集中實施
弘 報 揭 示 教 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政府刊行 弘報物 揭示</li> <li>· 反共畫報 및 사진게시</li> <li>· 時事資料 게시</li> </ul>	年中實施
訓 話 教 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學父母 啓導를 위한 家庭通信文 발송</li> <li>· 愛國朝會時 學校長 訓話</li> <li>· 擔任教師의 5分訓話</li> <li>· 學校長 特講</li> <li>· 外來講師 特講</li> </ul>	年中實施
其 他 教 育 活 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間諜識別 및 申告要領 特別教育</li> <li>· 不穩印刷物 習得申告 要領 教育</li> <li>· 새마을 教室 運營</li> <li>· 學生幹部 修練院 入所</li> <li>· 教職員 國民精神教育 自體研修</li> <li>· 國民精神教育 解說資料 普及</li> <li>· 意識改革活動 推進</li> </ul>	年中實施

## 2. 統一安保에 대한 既存研究 現況

本 研究와 關聯하여 國內에서 行해진 研究들은 主로 大學生과 一般人들을 對象

으로 하고 있으며, 中·高等學生을 對象으로 行해진 研究는 많지 않다. 統一安保意識에 대한 內容도 一部分에 限定되어 있고, 道具製作 過程에서 概念模型을 設定하고 있는 研究도 드물었다.

統一安保意識을 包含하고 있는 代表的인 研究들을 보면, 金順圭는 ‘安保意識에 대한 大學生과 勤勞者의 反應研究’에서 國力에 대한 信賴度, 友邦에 대한 信賴度, 共產國과의 關係改善, 韓國安保의 威脅要素 등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으며,<sup>24)</sup> 金恒元은 ‘韓國大學生의 對北韓觀研究’에서 對北韓觀概念模型을 設定하여 問項을 製作하고 있으며, 北韓의 政治(軍事, 對南戰略包含), 經濟, 社會, 文化(歷史, 言語, 教育, 宗教包含)에 대한 領域 아래 51個 問項을 設定하여 對北韓觀을 綜合的이며 包括的으로 調査分析하고 있다.<sup>25)</sup> 朴容憲外는 ‘現代 韓國人의 政治意識에 관한 研究’에서 統一·安保의 領域 아래 共產國家에 대한 感情, 統一에 대한 意志, 統一方式에 대한 認識, 統一遲延責任에 대한 認識, 北韓共產集團에 대한 感情, 北韓에서의 生存與否, 安保態勢에 대한 認識, 安保에 대한 自信感, 젊은 世代의 反共意識 등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다.<sup>26)</sup> 李宇榮外는 ‘統一·安保問題에 대한 大學生의 意識構造’에서 統一, 安保, 對共 등에 대한 意識을 高等學生과도 比較하고 있다.<sup>27)</sup> 李命吉外는 ‘地方中學生의 勝共生活態度分析’에서 教育받은 反共教育에 대한 새로운 問題點을 發見하려 하고 있다.<sup>28)</sup> 崔滋凡是 ‘中·高等學生에 대한 統一安保教育(實態中心)’에서 統一安保觀의 定立을 위한 提言의 目的下에 反共教科書에 대한 認識, 反共教授方法, 反共의 一般的 觀念, 우리의 統一政策에 대한 理解度 등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sup>29)</sup>

24) 金順圭, 前掲論文, pp.129 ~ 155.

25) 金恒元, “韓國 大學生의 對北韓觀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26) 朴容憲外, “現代韓國人의 政治意識에 관한 研究,” 韓國思想과 倫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27) 李宇榮外, “統一·安保問題에 대한 大學生의 意識構造,” 統一政策 第3卷 第3號, 平和統一研究所, 1977, pp.19 ~ 43.

28) 李命吉外, “地方 中學生의 勝共生活態度分析,” 慶尙大學 論文集(人文·社會科學編) 第16輯 第2號, 1977, pp.27 ~ 41.

29) 崔滋凡, “中·高等學生에 대한 統一安保教育(實態中心),” 統一政策 第3卷 第3號, 平和統一研究所, 1977. pp.80 ~ 93.

濟州道를 中心으로 實施한 研究들을 보면, 高性俊은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序說的 研究’에서 在日濟州同胞를 對象으로 在日同胞의 統一安保意識을 分析하고 있으며, 統一安保와 關聯하여 韓半島 統一에 대한 視角, 北傀의 戰爭挑發危險에 대한 認識, 北韓共產主義社會觀 등을 主要 內容으로 하여 交叉分析하고 있다.<sup>30)</sup> 金恒元은 ‘濟州道住民의 反共意識考察’에서 前述한 朴容憲外의 論文<sup>31)</sup>에서의 8個 問項과 同一한 濟州道 住民들의 反共意識을 調查하기 위한 22個 問項 중 8個 問項을 比較分析하고 있으며, 그 內容은 共產國家에 대한 感情, 共產社會의 實現可能性, 北韓社會에서의 生存與否, 統一遲延責任에 대한 認識, 統一方式에 대한 認識, 統一에 대한 意志, 國家同一視, 安保에 대한 自信感 등이다.<sup>32)</sup> 또한 그는 ‘濟州道 住民의 反共意識調查研究’에서 前述한 論文<sup>33)</sup>의 內容으로 土着人과 外來人 사이의 反共意識性向을 分析하기도 했다.<sup>34)</sup> 濟州大學 統一安保 研究所는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查研究’에서 統一安保에 대한 一般意識과 濟州道の 地域的 特殊性에 關聯된 意識 등 二次元에서 道民의 統一安保意識을 把握하고 있다.<sup>35)</sup>



### 3. 教科書內容 分析<sup>36)</sup>

中學校의 道德과 高等學校의 國民倫理 教科를 對象으로 分析하였으며, 그 範圍 및 內容은 各各 <表 5>, <表 6>에 提示된 바와 같다.

30) 高性俊,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序說的 研究,” 濟州大學 論文集 第 11 輯, 1980, pp.267 ~ 301.

31) 朴容憲 外, 前揭論文.

32) 金恒元, “濟州道住民의 反共意識 考察,” 月巖 金宗業教授 華甲紀念論叢, 1981, pp.293 ~ 318.

33) 上揭論文.

34) 金恒元, “濟州道住民의 反共意識調查研究,” 濟州大學 論文集(社會科學編) 第 13 輯, 1981, pp.151 ~ 171.

35) 濟州大學 統一安保 研究所, “濟州道民의 意識構造調查研究,” 1979. pp.239 ~ 296.

36) 韓國教育開發院, 中學校 道德 1, 2, 3 (各 下卷), 1982.

—————, 高等學校 國民倫理, 1982.

〈表 5〉 教科書 内容分析 範圍

区分 次元	中 學 校	備 考	高 等 學 校
共産主義	・共産社會의 現實 (pp.105 ~ 150)	2 學年	・共産社會의 人間觀 (pp.38 ~ 44) ・共産社會에서의 藝術 (pp.113 ~ 115) ・共産社會의 特徵 (pp.176 ~ 182) ・北韓共産体制의 現實 (pp.228 ~ 244)
北 韓	・北韓의 現實 (pp.85 ~ 168)	1 學年	・北韓共産集團의 文 化的 異端性 (pp.82 ~ 88) ・共産社會에서의 宗 教 (pp.136 ~ 138) ・共産主義的 人間觀 (pp.203 ~ 205)
統 一 安 保	・平和統一의 意志 (pp.75 ~ 152)	3 學年	・祖國守護와 國土統一 (pp.247 ~ 313)

〈表 6〉 教科書에 나타난 統一安保 關係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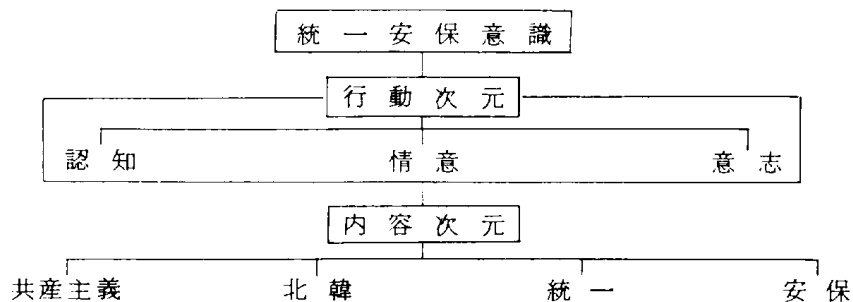
区分 次元	内 容	中 學 校	高 等 學 校
共 産 主 義	政治 일당독재정치, 단일입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적 3권분립 經濟 사유재산제도 부정, 공산국가의 낙후된 경제현실 社會 감시와 통제, 강제노동 文化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		공산당 독재정치 사유재산제도 부정, 침체된 경제현실 집단농장, 집단주의 사회 유물론적 인간관
北 韓	政治 김일성 일인독재, 김일성 우상화, 족벌정치 및 세습후계 체제 經濟 농업의 집단화, 농민착취, 중공업우선정책, 강제노동 (천리마운동 등) 社會 개인생활 말살, 통제와 감시체제, 가정의 파괴와 말살 文化 종교말살. 민족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의 말살, 선동의 앞잡이가 된 문예인		노동당, 김일성일인독재체제, 김일성우상화, 김일성·김정일부지세습체제, 족벌체제 군사 경제 우선주의, 노동력착취 (천리마운동등), 전시 산업화 폐쇄. 통제사회, 북한청소년의 생활억압, 통제된 가정생활, 5호담당제 전통사상의 말살, 역사의 날조와 왜곡, 종교말살

統 一	南韓	통일의 민족적 의의, 민주적 평화통일,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평화통일 기반 조성, 통일정책(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의등), 통일세대	통일의 당위성, 민족정통사적 통일, 통일기반 조성, 통일정책(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의 등), 통일후의 상태
	北韓	적화통일, 평화통일 5대강령, 고려연방제	무력적화통일, 동족간의 이질화, 연방제 통일안
安 保	對內	동족상자의 전쟁재발억제, 방위산업 확충, 국력배양	국민총화, 국력배양, 전쟁재발억제력 확보, 총력안보태세 확립
	對外	위장평화 공세,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3대혁명역량의 강화, 4대군사노선, 통일전선전술, 간접침략 음모, 대남무력 도발	민주기지노선, 3대혁명역량의 강화, 민족해방론, 인민 민주주의 혁명, 4대군사노선, 전쟁준비 완료, 통일전선 전술

#### 4. 分析을 爲한 概念模型

中學校의 道德과 高等學校의 國民倫理教科 內容을 分析하고 先行研究의 內容을 參考하여 統一安保意識에 關한 方向을 設定한 後 金恒元의 前述한 論文들<sup>37)</sup>에서 使用한 概念模型을 援用하여 統一安保意識의 概念模型을 設定하였다. 概念模型은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行動次元에서는 態度構成理論<sup>38)</sup>에 의하여 認知·情意·意志로 分類 하였으며, 內容次元에서는 共產主義, 北韓, 統一, 安保 등으로 分類하였다.

<表 7> 統一安保意識의 概念模型



37) 金恒元, "濟州道住民의 反共意識 考察," 前掲論文, p.295 및

"濟州道住民의 反共意識 調査研究," 前掲論文, p.153 參照.

38) 朴容憲, 社會的 行動과 學習(서울: 教育出版社, 1981), pp.297 ~ 331.

### Ⅲ. 中·高等學生의 統一安保意識 分析

概念模型에서 提示된 바와 같이 統一安保意識을 內容次元과 行動次元別로 製作된 42개 問項에 대한 標集對象者들의 反應結果를 다음과 같은 順序에 따라 分析하기로 한다. 첫째, 統一安保意識의 概念模型에서 提示된 順序에 따라 各 問項들에 대한 全體 應答者의 反應傾向 및 反應分布를 提示하고, 둘째, 情意와 意志水準에서는 標集對象者의 背景變因別로 有意한 差가 있는가를 分析하여 그 有意한 差의 結果를 中心으로 反應傾向을 解釋하고 論議하며 (學年別에서는 中1·中2·中3을 中學生, 高1·高2·高3을 高等學生으로 묶어서 解釋하는 境遇가 많음), 셋째,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를 차례로 分析하면서 論議하며, 넷째, 全體 및 背景變因別 各 集團 間에 두드러진 差異가 있거나, 各 問項 間에 意味있는 差異가 있는 反應結果를 綜合 提示하기로 한다.



#### 1. 共產主義

共產主義에 대한 中·高等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9개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區分하여 測定하고자 하는 意識內容을 提示해 보면, 認知水準에서는 共產主義에 대한 知識源, 共產國家의 政治的 特徵, 共產國家의 經濟現實, 共產國家의 社會的 特徵 그리고 共產國家의 人間觀 等이며, 情意水準에서는 共產主義가 우리 民族傳統에의 適合性 與否 및 共產國家에 대한 感情 等이고, 意志水準에서는 民主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과 共產主義 戰略에 대한 警戒心 等이다.

##### 1) 共產主義에 대한 知識源

共產主義에 대한 知識源을 알아보기 위하여 “共產主義에 대한 知識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8>에서 보여 주는 바

와 같이全體應答者의 43.0%가 ‘學校 선생님’, 0.5%가 ‘家族·親知’, 53.0%가 ‘新聞·雜誌·라디오·TV’ 그리고 3.6%가 ‘講演會’라는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共產主義에 대한知識源은 매스컴(53.0%)과 學校 선생님(43.0)이라는反應을 높게 보이고 있다.

〈表 8〉 共產主義에 대한知識源의全體反應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43.0	0.5	52.9	3.6	100

### 2) 共產國家의 政治的 特徵에 대한 認識

共產國家의 政治的 特徵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해서 “共產國家들의 政治的 特徵은”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全體應答者의 96.7%가 ‘一黨獨裁體制’라는反應을 하고 있으며, 3.3%만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9〉 共產國家의 政治的 特徵에 대한 認識의全體反應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96.7	0.5	0.4	2.4	100

### 3) 共產國家의 經濟現實에 대한 認識

共產國家의 經濟現實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共產國家들의 經濟現實은”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1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全體應答者의 93.2%가 ‘食料品 및 日常 消費用品을 購入하기 어려운 實情이다’라는反應을 보이고 있다.

〈表 10〉 共產國家의 經濟現實에 대한 認識의全體反應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3.2	2.7	93.2	0.9	100

#### 4) 共產國家의 社會的 特徵에 대한 認識

共產國家의 社會的 特徵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共產國家들이 住民을 統制·監視하는 理由는” 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1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71.9%가 ‘共產政權을 有持하기 위해서’, 1.7%가 ‘各種 犯罪發生이 甚하기 때문에’, 4.5%가 ‘經濟發展을 위한 勞動力을 動員하기 위해서’ 그리고 21.9%가 ‘自由를 찾아 亡命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28.1%가 共產國家들이 住民에 대한 統制·監視 理由가 共產政權有持에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1> 共產國家의 社會的 特徵에 대한 認識의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71.9	1.7	4.5	21.9	100

#### 5) 共產國家의 人間觀에 대한 認識

共產國家에서의 人間觀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人間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1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全體 應答者의 91.9%가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으로 본다’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表 12> 共產國家의 人間觀에 대한 認識의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91.9	0.8	1.5	5.8	100

#### 6) 共產主義가 우리 民族傳統에의 適合性 與否

共產主義가 우리 民族傳統에의 適合性 與否에 대한 感情的 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共產主義는 우리 民族傳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民族傳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否定的反應이 73.1%, 肯定的反應이 17.0%로 나타나고 있어(M = 4.01) “共產主義는 우리民族傳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否定的反應傾向은 높게 보이고 있다고 하겠으나,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라는反應도 26.9%나 되고 있다.

〈表 13〉에서 보여 주는全體反應結果를背景變因別로分析해 보면, 學年別·居住地別(P < .005), 宗教別(P < .05)에서는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共產主義는 우리民族傳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否定的反應을 높게 보인集團은, 學年別에서는 대체로高等學生이中學生보다, 市(M = 4.21) 그리고 無敎(M = 4.06) 및 基督教(M = 4.04)等이며, 否定的反應이 낮은集團은 邑(M = 3.89), 그리고 其他宗教(M = 3.71) 및 佛敎(M = 3.96)等이다.

性別과 家長의 職業別에서는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女子(M = 4.01)가 男子(M = 4.00)보다, 無職(M = 4.24)과 商業(M = 4.15)이 農業(M = 3.94)과 會社員(M = 3.99)보다 共產主義가 民族傳統에 맞지 않다는否定的反應傾向을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以上の反應結果를要約해 보면 “共產主義는 우리民族傳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否定的反應傾向은 높다고 하겠으며(73.1%), 이러한反應傾向은高等學生이中學生보다, 市(80.3%), 無職(81.9%)等이 높으며, 其他宗教(61.8%)集團이否定的反應傾向을 낮게 보이는 것은特異하다.

## 7) 共產國家에 대한 感情

共產國家에 대한 感情的 性向을測定하기 위하여 “共產國家들이 富強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라는問項을提示한結果, 〈表 1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79.9%가 ‘그렇다’, 12.2%가 ‘아니다’라는反應을 보여(M = 4.22) 共產國家들이 富強해지는 것에 대한 感情的 性向은否定的으로 기우는程度가比較的 높다고 하겠다.

〈表 14〉에 나타난全體反應結果를背景變因別로分析해 보면, 背景變因別各集團間에는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共產國家에 대한否定的感情을 높게

〈表 13〉共產主義가 우리民族傳統에의 適合性 與否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 · 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1,254	4.01	1.25	50.1	23.0	9.9	11.4	5.6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因	變因区分	變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4.00	1.27	1.7221	51.1	21.8	95.0	11.5	6.0
	女	48.2	4.01	1.23		49.0	24.3	10.3	11.3	5.1
學 年 別	中 1	19.8	3.81	1.27	38.0994	41.1	25.8	11.7	16.1	5.2
	中 2	18.3	3.76	1.35		41.7	23.9	10.4	16.1	7.8
	中 3	19.7	4.09	1.25		54.7	21.9	8.5	8.1	6.9
	高 1	21.8	4.07	1.23		52.4	22.3	10.3	9.5	5.5
	高 2	20.4	4.27	1.08		59.4	21.5	8.6	7.8	2.7
居 住 地 別	市	35.2	4.21	1.15	24.1802	57.2	23.1	7.0	8.6	4.1
	邑	39.4	3.89	1.31		46.4	23.3	9.9	13.8	6.7
	面	25.4	3.91	1.26		45.9	22.6	13.8	11.6	6.0
家 長 의 職 業 別	公務員	9.3	4.08	1.20	20.6426	50.9	25.9	8.6	9.5	5.2
	會社員	8.2	3.99	1.29		52.4	17.5	12.6	11.7	5.8
	商 業	14.5	4.15	1.18		54.4	25.3	6.6	8.8	4.9
	農 業	62.6	3.94	1.27		47.9	23.1	10.6	12.5	6.0
	軍 人	1.0	4.23	1.30		69.2	0.0	23.1	0.0	7.7
	無 職	4.4	4.24	1.09	56.4	25.5	5.5	10.9	1.8	
宗 教 別	佛 教	34.4	3.96	1.31	22.9331	50.0	23.4	6.5	13.2	6.9
	基 督 教	16.4	4.04	1.27		52.7	21.5	10.2	8.8	6.8
	其他宗教	4.4	3.71	1.36		41.8	20.0	10.9	21.8	5.5
	宗教없음	44.8	4.06	1.18		50.0	23.7	12.3	10.0	4.1

\* P < .005, ☆ P < .05

〈表 14〉 共產國家에 대한 感情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4.22	1.16	59.3	20.6	7.9	7.4	4.8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4.14	1.22	7.2473	56.3	21.4	8.2	8.3	5.8
	女	48.2	4.31	1.09		62.6	19.7	7.6	6.5	3.6
學 年 別	中 1	19.8	4.22	1.10	20.6100	55.6	25.4	8.5	6.5	4.0
	中 2	18.3	4.17	1.23		59.6	17.8	9.1	7.4	6.1
	中 3	19.7	4.08	1.26		54.7	20.6	10.1	7.3	7.3
	高 1	21.8	4.29	1.09		61.5	20.5	6.2	9.2	2.6
	高 2	20.4	4.33	1.12		64.8	18.4	5.9	6.6	4.3
居 住 地 別	市	35.2	4.28	1.14	13.0985	62.4	19.0	7.0	7.2	4.3
	邑	39.4	4.26	1.14		61.3	19.4	7.3	7.9	4.0
	面	25.4	4.08	1.22		51.9	24.5	10.1	6.9	6.6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4.28	1.10	16.9613	58.6	25.9	6.0	4.3	5.2
	會 社 員	8.2	4.21	1.17		60.2	18.4	6.8	11.7	2.9
	商 業	14.5	4.37	1.05		63.7	21.4	7.1	3.3	4.4
	農 業	62.6	4.19	1.19		58.6	20.0	8.2	8.2	5.1
	軍 人	1.0	4.08	1.19		53.8	15.4	15.4	15.4	0.0
	無 職	4.4	4.15	1.21		56.4	20.0	10.9	7.3	5.5
宗 教 別	佛 教	34.4	4.15	1.21	12.9354	56.9	20.1	9.7	7.6	5.6
	基 督 教	16.4	4.23	1.21		63.9	14.1	8.3	8.8	4.9
	其他宗教	4.4	4.25	1.19		61.8	20.0	5.5	7.3	5.5
	宗教없음	44.8	4.27	1.11		59.3	23.3	6.6	6.8	4.1

보인集團과 낮게 보인集團을比較해 보면, 學年別로 高等學生이 中學生 보다, 家長의 職業別에서 商業(M=4.37)과 公務員(M=4.28)이 無職(M=4.15)과 農業(M=4.19) 보다 그리고 宗教別에서 無教(M=4.27)와 其他宗教(M=4.25)가 佛敎(M=4.15)와 基督教(M=4.23) 보다 “共產國家들이 富強해지는 것을 보면 氣分이 나쁘다”라는 反應을 比較的 더 높게 보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共產國家에 대한 否定的 反應은 比較的 높다고 하겠으며(79.9%) 이러한 反應傾向은 家長의 職業別에서 商業(85.1%)과 公務員(84.5%)이 높게, 無職(76.4%)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8) 民主體制的 優越性에 대한 信念

民主體制的 優越性에 대한 意志水準을 測定하기 위하여 “共產主義體制 보다 民主主義體制가 더 살기 좋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93.7%가 肯定的 反應을, 6.3%가 否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어(M=4.74) 民主主義의 優越性에 대한 肯定的 反應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15>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學年別(P<.01)과 居住地別(P<.05)에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나 一貫性은 없으며 中3(M=4.85)이 中2(M=4.60) 보다, 邑(M=4.82)이 市(M=4.65)보다 民主體制的 優越性에 대한 肯定的 反應을 높게 보이고 있다.

性別, 家長의 職業別 및 宗教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宗教別로 其他宗教(M=4.85)가 높게, 家長의 職業別로 無職(M=4.56)이 낮은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民主體制的 優越性에 대한 信念은 높은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93.7%), 이러한 傾向은 中3(96.8%)이 中2(88.7%) 보다, 邑(96.4%)이 市(92.1%) 보다 比較的 더 높게 보이고 있다.

#### 9) 共產主義 戰略에 대한 警戒心

共產主義者들의 戰略에 대한 警戒心을 測定하기 위하여 “나는 共產主義者들의

〈表 15〉 民主体制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1,254	4.74	0.78	86.0	7.7	2.9	0.8	2.6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因	變因区分	變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4.72	0.78	6.0013	84.3	9.4	3.1	0.6	2.6
	女	48.2	4.76	0.77		87.9	6.0	2.6	1.0	2.5
學 年 別	中 1	19.8	4.73	0.78	32.6910	86.3	6.5	3.6	1.6	2.0
	中 2	18.3	4.60	0.98		81.7	7.0	6.1	0.4	4.8
	中 3	19.7	4.85	0.54		89.9	6.9	2.0	0.4	0.8
	高 1	21.8	4.77	0.69		86.1	8.8	2.6	1.1	1.5
	高 2	20.4	4.73	0.84		85.9	9.4	0.4	0.4	3.9
居 住 地 別	市	35.2	4.65	0.92	19.5294	82.4	9.7	2.7	1.1	4.1
	邑	39.4	4.82	0.60		89.1	7.3	1.8	0.6	1.2
	面	25.4	4.73	0.80		86.5	5.7	4.7	0.6	2.5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4.65	0.91	25.2698	81.9	9.5	3.4	1.7	3.4
	會 社 員	8.2	4.74	0.78		85.4	8.7	2.9	0.0	2.9
	商 業	14.5	4.65	0.96		83.5	8.2	2.7	0.5	4.9
	農 業	62.6	4.79	0.68		87.8	7.1	2.7	0.8	1.7
	軍 人	1.0	4.77	0.83		92.3	0.0	0.0	7.7	0.0
	無 職	4.4	4.56	1.01	78.2	10.9	5.5	0.0	5.5	
宗 教 別	佛 教	34.4	4.72	0.88	13.8589	87.5	5.1	2.8	0.7	3.9
	基 督 教	16.4	4.76	0.71		85.4	9.3	2.9	0.5	2.0
	其 他 宗 教	4.4	4.84	0.63		90.9	5.5	1.8	0.0	1.8
	宗 教 없 음	44.8	4.74	0.73		84.7	9.4	3.0	1.1	1.8

☆° P < .01, ☆ P < .05

〈表 16〉 共產主義 戰略에 대한 警戒心の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85	1.13	35.9	30.6	18.7	11.7	3.1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因	變因区分	變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83	1.12	1.5302	34.6	32.0	18.6	11.5	3.2
	女	48.2	3.86	1.13		37.3	29.1	18.9	11.8	3.0
學 年 別	中 1	19.8	3.65	1.14	50.1350	26.2	33.9	23.8	10.5	5.6
	中 2	18.3	3.74	1.15		35.2	21.7	27.8	12.2	3.0
	中 3	19.7	3.93	1.12		38.9	31.6	16.2	10.1	3.2
	高 1	21.8	3.89	1.10		35.9	34.4	14.3	13.6	1.8
	高 2	20.4	4.01	1.10		43.0	30.5	12.9	11.7	2.0
居 住 地 別	市	35.2	3.93	1.06	15.1801	36.7	35.1	14.9	11.8	1.6
	邑	39.4	3.79	1.16		35.0	28.7	20.6	11.5	4.0
	面	25.4	3.81	1.16		36.2	27.4	21.1	11.6	3.8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4.21	0.96	30.4001	48.3	33.6	9.5	7.8	0.9
	會 社 員	8.2	3.69	1.20		33.0	27.2	18.4	18.4	2.9
	商 業	14.5	3.92	1.03		35.2	34.6	18.1	11.0	1.1
	農 業	62.6	3.80	1.14		34.3	30.3	20.0	11.6	3.8
	軍 人	1.0	4.08	0.86		38.5	30.8	30.8	0.0	0.0
	無 職	4.4	3.78	1.26		40.0	21.8	20.0	12.7	5.5
宗 教 別	佛 教	34.4	3.89	1.12	14.3210	37.5	30.3	19.0	10.0	3.2
	基 督 教	16.4	3.83	1.21		40.0	25.4	16.1	15.1	3.4
	其他宗教	4.4	3.78	0.99		29.1	30.9	29.1	10.9	0.0
	宗教없음	44.8	3.82	1.12		33.8	32.7	18.5	11.7	3.2

△° P < .0001

戰略을 恒常 警戒하고 있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1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66.5%가 肯定的 反應을, 14.8%가 否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M = 3.85$ ) 共產主義 戰略을 警戒한다는 肯定的 反應은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라는 反應도 33.5%나 되고 있다.

<表 16>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學年別에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P < .0001$ ), 대체로 學年이 높을 수록 共產主義 戰略을 警戒한다는 肯定的 反應傾向을 높게 보이고 있다.

性別, 居住地別, 家長의 職業別 및 宗教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共產主義 戰略을 警戒한다는 肯定的 反應傾向이 比較的 높은 集團은 性別에서 女子( $M = 3.86$ ), 居住地別로 市( $M = 3.93$ ), 家長의 職業別로 公務員( $M = 4.21$ )과 商業( $M = 3.92$ ) 그리고 宗教別에서 佛敎( $M = 3.89$ ) 등이며, 比較的 肯定的 反應을 낮게 보이고 있는 集團은 男子( $M = 3.83$ ), 邑( $M = 3.79$ ), 會社員( $M = 3.69$ )과 無職( $M = 3.78$ ), 其他宗教( $M = 3.78$ ) 集團 等이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共產主義 戰略을 警戒한다는 肯定的 反應傾向은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66.5%), 學年이 높을 수록 이러한 傾向을 높게 보이고 있다. 또한 公務員集團(81.9%)에서 特히 높은 肯定的 反應을, 會社員集團(70.2%)에서 特히 낮은 肯定的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特異하다.

## 2. 北 韓

北韓에 대한 中·高等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10개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들을 行動次元으로 區分하여 測定하고자 하는 意識內容을 提示하면, 認知水準에서는 北韓의 政治現實에 대한 認識, 金日成 偶像化 程度, 北韓의 經濟現實, 北韓의 ‘千里馬運動’ 및 北韓의 教育目標에 대한 認識 等이고, 情意水準에서는 北韓靑少年들에 대한 同情과 北韓이 우리 보다 잘 살 수 있을 可能性 與否 等이며 意志水準에서는 北韓社會에서의 生活 可能性 與否, 北韓을 國家로

認定 與否 및 北韓의 宣傳에 대한 不信感 等이다.

### 1) 北韓의 政治現實에 대한 認識

北韓의 政治現實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北韓의 政治現實은”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82.9%가 金日成에 의한 一人獨裁政治를 하고 있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 17.1%는 北韓의 政治現實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7> 北韓의 政治現實에 대한 認識의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7.1	7.1	82.9	2.9	100

### 2) 金日成 偶像化 程度에 대한 認識

金日成 偶像化 程度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金日成 偶像化 程度는”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1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8.9%가 ‘金日成의 肖像畫나 銅像建立 程度이다’, 77.9%가 ‘金日成은 거의 超人的인 存在로 神格化되고 있다’, 2.5%가 ‘北韓의 政治問題와는 關係없이 進行되고 있다.’ 그리고 10.7%가 ‘金正日の 後繼者問題는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다’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表 18> 金日成 偶像化 程度에 대한 認識의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8.9	77.9	2.5	10.7	100

### 3) 北韓의 經濟現實에 대한 認識

北韓의 經濟現實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北韓의 經濟現實은”이란 問項을 提示한 바, <表 19>에 나타난 것 처럼 全體應答者의 95.3%가 “衣·



食·住問題 解決이 어려운 程度이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表 19〉 北韓의 經濟現實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95.3	0.6	1.7	2.4	100

#### 4) 北韓의 ‘千里馬運動’에 대한 認識

北韓의 ‘千里馬運動’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해 “北韓의 ‘千里馬運動’이란 問項을 提示한 바, 〈表 2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9%가 ‘軍事力增強을 위한 運動’, 1.7%가 ‘體育強化를 위한 運動’, 2.6%가 ‘住民統制를 위한 運動’ 그리고 75.8%가 ‘勞動力榨取를 위한 運動’이다 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 24.6%가 北韓의 ‘千里馬運動’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0〉 北韓의 ‘千里馬 運動’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19.9	1.7	2.6	75.8	100

#### 5) 北韓의 教育目標에 대한 認識

北韓의 教育目標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해 “北韓의 教育目標는”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全體應答者의 87.1%가 ‘共產主義的 人間의 形成’이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表 21〉 北韓의 教育目標에 대한 認識의 全體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3.3	8.6	87.1	1.0	100

6) 北韓의 靑少年에 대한 同情心

北韓靑少年들에 대한 同情心を 測定하기 위하여 “自由롭게 學校에 다닐 수 없는 北韓의 靑少年을 생각하면 가엾다.” 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95.3%가 ‘그렇다’, 4.7%가 ‘아니다’ 라는 反應을 보여 (M = 4.67) 北韓의 靑少年에 대한 同情心은 높은 肯定的 反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2> 北韓의 靑少年에 대한 同情心の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4.67	0.71	76.1	19.2	1.8	1.6	1.3	100

7) 北韓이 우리 보다 잘 살 수 있을 可能性

北韓이 우리 보다 잘 살 수 있을 可能性에 대한 感情的 性向을 測定하기 위해 “北韓이 아무리 發展해도 우리 보다 잘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2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54.9%가 ‘그렇다’ 라는 反應을, 21.5%가 ‘아니다’ 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M = 3.62) 北韓이 우리 보다 잘 살 수 있을 可能性에 대한 否定的 反應이 比較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잘 모르겠다’ 와 ‘아니다’ 라는 反應이 45.1%나 되어 注目된다.

<表 23>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 (P < .005) 과 學年別 (P < .01) 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女子 (M = 3.70) 가 男子 (M = 3.55) 보다, 高等學生이 中學生 보다 “北韓이 아무리 發展해도 우리 보다 잘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反應을 높게 보이고 있다.

居住地別 (P < .01) 과 家長의 職業別 (P < .05) 에서도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市 (M = 3.79) 가 邑 (M = 3.46) 보다, 商業 (M = 3.76) 과 公務員 (M = 3.70) 이 無職 (M = 3.49) 이나 農業 (M = 3.57) 보다 “北韓이 아무리 發展해도 우리 보다 잘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表 23〉 北韓이 우리보다 잘 살수 있을 可能性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計
1,254	3.62	1.29	35.8	19.1	23.6	14.6	6.9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55	1.35	15.4473	34.6	19.4	21.4	15.2	9.4	*
	女	48.2	3.70	1.22		37.1	18.7	26.0	13.9	4.3	
學 年 別	中 1	19.8	3.61	1.26	33.6286	33.5	21.0	25.8	12.5	7.3	☆°
	中 2	18.3	3.48	1.38		35.2	16.5	17.8	22.2	8.3	
	中 3	19.7	3.54	1.27		32.4	17.0	31.2	11.3	8.1	
	高 1	21.8	3.77	1.21		38.1	22.7	21.2	13.9	4.0	
	高 2	20.4	3.68	1.32		39.5	17.6	21.9	13.7	7.4	
居 住 地 別	市	35.2	3.79	1.24	21.8441	40.5	21.7	19.2	13.8	4.8	☆°
	邑	39.4	3.46	1.32		31.2	17.6	26.1	15.8	9.3	
	面	25.4	3.64	1.27		36.5	17.6	25.8	13.8	6.3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3.70	1.41	34.1186	46.6	11.2	14.7	20.7	6.9	✱
	會 社 員	8.2	3.69	1.19		32.0	27.2	23.3	12.6	4.9	
	商 業	14.5	3.76	1.25		37.9	24.7	19.2	12.1	6.0	
	農 業	62.6	3.57	1.29		34.3	18.1	25.5	15.0	7.1	
	軍 人	1.0	3.92	1.04		38.5	23.1	30.8	7.7	0.0	
	無 職	4.4	3.49	1.39		34.5	14.5	29.1	9.1	12.7	
宗 教 別	佛 教	34.4	3.55	1.27	10.2171	31.9	20.8	24.8	15.5	6.9	
	基 督 教	16.4	3.61	1.36		37.6	18.0	22.0	12.7	9.8	
	其他宗教	4.4	3.62	1.25		32.7	21.8	27.3	10.9	7.3	
	宗教없음	44.8	3.68	1.28		38.4	17.8	23.0	14.9	5.9	

\* P < .005, ☆ P < .01, ☆° P < .05

以上の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54.9%가 “北韓이 아무리 發展해도 우리 보다 잘 살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女子(55.8%), 高等學生, 商業(62.6%)과 公務員(57.8%)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特히 無職(49.0%)集團에서 낮은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어 特異하다.

### 8) 北韓에서의 生活 可能性 與否

北韓에서의 生活 可能性 與否에 대한 意志水準을 測定하기 위해 “어떤 좋은 條件이라 해도 北韓共産治下에서는 살지 않겠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87.3%가 ‘그렇다’라는 反應을, 6.0%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여 (M=4.57) 北韓에서의 生活 可能性 與否에 대한 否定的 反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4> 北韓에서의 生活 可能性 與否에 대한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1,254	4.57	0.96	78.9	8.4	6.7	2.8	3.2	100

### 9) 北韓을 國家로 認定 與否

北韓을 國家로 認定 與否에 대한 意志水準을 測定하기 위해 “北韓을 하나의 國家로 認定할 수 없다”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2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64.1%가 ‘그렇다’, 20.5%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M=3.83), 北韓을 國家로 認定與否에 대한 否定的 反應傾向은 比較的 높다고 하겠으나,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라는 反應이 35.9%나 되어 注目된다고 하겠다.

<表 25>에서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居住地別에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P < .0001), 市(M=4.06)가 郡(M=3.62)보다 北韓을 國家로 認定 與否에 대한 否定的 反應傾向을 높게 보이고 있다.

性別, 學年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女子(M=3.93)가 男子

〈表 25〉 北韓을 國家로 認定與否에 대한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率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83	1.35	47.0	17.1	15.4	12.4	8.1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率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73	1.38	7.8027	44.0	16.9	15.8	14.3	8.9
	女	48.2	3.93	1.31		50.2	17.4	14.9	10.3	7.1
學 年 別	中 1	19.8	3.89	1.34	7.3879	49.2	17.3	14.9	10.1	8.5
	中 2	18.3	3.78	1.33		44.8	16.5	17.8	13.9	7.0
	中 3	19.7	3.74	1.40		45.3	16.2	15.8	12.6	10.1
	高 1	21.8	3.86	1.33		47.3	19.4	13.6	12.1	7.7
	高 2	20.4	3.84	1.34		48.0	16.0	15.2	13.7	7.0
居 住 地 別	市	35.2	4.06	1.28	36.6542	55.9	17.2	10.0	11.1	5.9
	邑	39.4	3.62	1.40		39.9	17.0	19.4	12.8	10.9
	面	25.4	3.81	1.32		45.6	17.3	16.7	13.8	6.6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4.06	1.29	22.2920	56.9	14.7	12.1	10.3	6.0
	會 社 員	8.2	3.82	1.40		48.5	16.5	11.7	14.6	8.7
	商 業	14.5	4.08	1.26		56.0	16.5	12.6	8.8	6.0
	農 業	62.6	3.73	1.36		42.9	18.2	16.7	13.6	8.5
	軍 人	1.0	3.62	1.56		46.2	7.7	23.1	7.7	15.4
無 職	4.4	3.87	1.38	50.9	12.7	18.2	9.1	9.1		
宗 教 別	佛 教	34.4	3.80	1.35	11.5973	44.9	19.7	14.4	12.5	8.6
	基 督 教	16.4	3.97	1.33		54.1	13.2	14.6	11.2	6.8
	其他宗教	4.4	3.65	1.46		45.5	12.7	12.7	20.0	9.1
	宗教없음	44.8	3.81	1.34		46.1	17.1	16.7	12.1	8.1

△° P < .0001

(M=3.73) 보다, 高等學生이 中學生 보다 北韓을 國家로 認定與否에 대한 否定的 反應을 높게 보이고 있다.

家長의 職業別, 宗教別에서도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北韓을 國家로 認定與否에 대한 否定的 反應은 商業(M=4.08)과 公務員(M=4.06)이 農業(M=3.73)과 會社員(M=3.82) 보다, 基督教(M=3.97)가 其他宗教(M=3.6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北韓을 國家로 認定與否에 대한 否定的 反應은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64.1%), 女子(67.6%), 市(73.1%) 그리고 商業(72.5%)과 公務員(71.6%)集團 등에서 否定的 反應을 높게 보이고 있으나 特히 其他宗教(58.2%)集團에서 否定的 反應을 낮게 보이는 것은 特異하다.

#### 10) 北韓의 宣傳에 대한 不信感

北韓의 宣傳에 대한 不信感을 測定하기 위해 “北韓共產集團이 主張하는 것 처럼 北韓社會가 ‘地上樂園’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2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84.7%가 ‘그렇다’, 7.6%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나타내어(M=4.46) 北韓의 宣傳에 대한 不信感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26> 北韓의 宣傳에 대한 不信感의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4.46	1.07	73.5	11.2	7.7	3.0	4.6	100

### 3. 統 一

統一에 關한 中·高等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12개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들을 行動次元으로 區分하여 測定코자 하는 意識內容을 提示하면, 認知水準에서는 統一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 統一의 沮害要因, 우리 政府의 統一方案, 統一問題 解決의 擔當者, 平和統一의 先行條件 및 北韓이 主張하는 所謂(偽裝) '平和統一'에 대한 認識 等이며, 情意水準에서는 統一時期展望, 統一後의 狀態 및 南北交流에 대한 期待感 等이고, 意志水準에서는 北韓의 統一方案批判, 統一意志 그리고 우리 政府의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度 等이다.

#### 1) 統一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

統一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우리가 統一되어야 할 가장 큰 理由는” 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27>에 나타난 것 처럼 53.0%가 ‘單一民族이기 때문’, 5.2%가 ‘國際競爭에 有利하기 때문’, 11.1%가 ‘離散 家族을 만날 수 있기 때문’, 30.7%가 ‘政治的 安定 때문’ 이란 反應을 보이고 있다.

<表 27>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과 學年別로는 男子(54.3%)가 女子(51.7%)보다, 高等學生이 中學生 보다 統一의 必要性에 대한 가장 큰 理由로 ‘單一民族’을 높게 들고 있다.

居住地別, 家長의 職業別 및 宗教別로는 市(57.2%)가 郡(49.8%)보다, 無職(65.5%)과 公務員(58.6%)이 商業(49.5%)보다 그리고 基督教(55.6%)와 無教(55.3%)가 其他宗教(41.8%)와 佛敎(50.2%)보다 높게 統一되어야 할 가장 큰 理由로 單一民族이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應答者의 53.0%가 統一의 가장 큰 理由로 ‘單一民族이기 때문’이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高等學生, 市(57.2%), 無職(65.5%)과 公務員(58.6%)集團 등에서 比較的 他集團

〈表 27〉 統一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53.0	5.2	11.1	30.7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因構成比	反 應 区 分 %			
			①	②	③	④
性 別	男	51.8	54.3	6.3	10.8	28.6
	女	48.2	51.7	4.0	11.4	32.9
學 年 別	中 1	19.8	42.7	6.0	17.7	33.5
	中 2	18.3	49.6	7.0	12.2	31.3
	中 3	19.7	50.2	6.1	8.5	35.2
	高 1	21.8	62.3	4.0	8.8	24.9
	高 2	20.4	59.0	3.1	8.6	29.3
居 住 地 別	市	35.2	57.2	5.2	10.0	27.6
	邑	39.4	49.8	4.5	12.3	33.4
	面	25.4	52.2	6.3	10.7	30.8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58.6	6.9	12.1	22.4
	會 社 員	8.2	52.4	4.9	16.5	26.2
	商 業	14.5	49.5	8.2	11.5	30.8
	農 業	62.6	52.4	4.2	10.6	32.9
	軍 人	1.0	46.2	15.4	15.4	23.1
	無 職	4.4	65.5	3.6	3.6	27.3
宗 教 別	佛 教	34.4	50.2	5.1	13.9	30.8
	基 督 教	16.4	55.6	5.4	7.3	31.7
	其 他 宗 教	4.4	41.8	7.3	9.1	41.8
	宗 教  없 음	44.8	55.3	5.0	10.5	29.2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特히 家長의 職業別 無職(65.5%) 集團이 높게, 商業(49.5%)과 宗教別로 其他宗教(41.8%) 集團에서 낮게 이러한 反應傾向이 나타나고 있음은 特異하다.

## 2) 統一의 沮害要因에 대한 認識

統一의 沮害要因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南北統一의 沮害要因은”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2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36.5%가 ‘南·北의 思想的 對立’, 6.4%가 ‘美·日·中·蘇 등의 利害關係’ 3.9%가 ‘事大主義 思想’ 그리고 53.2%가 ‘北韓共產集團의 無誠意’ 때문이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表 28>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南北統一의 沮害要因은 北韓共產集團의 無誠意” 때문이라는 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인 集團은, 性別, 學年別 및 居住地別로는 女子(53.3%), 中·高等學生 共히 學年이 낮을 수록 그리고 市(54.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家長의 職業別과 宗教別로, “南北統一의 沮害要因은 北韓共產集團의 無誠意”라는 反應이 높은 集團과 낮은 集團을 보면, 農業(54.0%)과 其他宗教(63.6%) 集團이 높게, 會社員(47.6%)과 無職(49.1%) 集團이 다른 集團에 비해 낮게 反應하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全體應答者의 53.2%가 “南北統一의 沮害要因은 北韓共產集團의 無誠意”라는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特히 宗教別 其他宗教(63.6%) 集團에서 높게, 家長의 職業別로 會社員(47.6%)과 無職(49.1%) 集團 등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3) 우리 政府의 統一方案에 대한 認識

우리 政府의 統一方案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우리 政府가 提示하는 統一方案은”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29>에 나타난 것 처럼 1.4%가 ‘實力行使(武力)를 통한 方法’, 81.3%가 ‘南北對話를 통한 段階的 方法’

〈表 28〉 統一의 沮害要因에 대한 認識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①	②	③	④	計
1,254	36.5	6.4	3.9	53.2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因構成比	反 應 区 分 %			
			①	②	③	④
性 別	男	51.8	36.6	7.1	3.2	53.1
	女	48.2	36.4	5.6	4.6	53.3
學 年 別	中 1	19.8	19.4	7.3	7.7	65.7
	中 2	18.3	39.6	8.3	0.9	51.3
	中 3	19.7	46.2	7.7	4.5	41.7
	高 1	21.8	32.2	4.4	5.5	57.9
	高 2	20.4	45.7	4.7	0.8	48.8
	居住地別	市	35.2	39.8	3.6	2.5
	邑	39.4	36.0	7.3	3.2	53.4
	面	25.4	32.7	8.8	6.9	51.6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38.8	4.3	3.4	53.4
	會 社 員	8.2	42.7	5.8	3.9	47.6
	商 業	14.5	40.7	3.8	2.2	53.3
	農 業	62.6	34.1	7.3	4.6	54.0
	軍 人	1.0	30.8	0.0	7.7	61.5
	無 職	4.4	41.8	9.1	0.0	49.1
宗 教 別	佛 教	34.4	38.9	6.7	3.2	51.2
	基 督 教	16.4	39.5	4.4	4.4	51.7
	其他宗教	4.4	29.1	1.8	5.5	63.6
	宗教없음	44.8	34.3	7.3	4.1	54.3

15.9 %가 ‘政治 및 經濟發展을 통한 方法’, 1.4 %가 ‘國際政治力量을 통한 方法’이란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表 29〉 우리 政府의 統一方案에 대한 認識의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1.4	81.3	15.9	1.4	100

#### 4) 統一問題解決 擔當者에 대한 認識

統一問題 解決의 擔當者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統一問題 解決을 위한 擔當者는”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4.0 %가 ‘政府가 해야 한다’, 75.0 %가 ‘一般國民이 해야 한다’는 反應을 보여, 統一問題 解決 擔當은 一般國民이라는데 높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表 30〉 統一問題 解決 擔當者에 대한 認識의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24.0	0.7	0.3	75.0	100

#### 5) 平和統一의 先行條件에 대한 認識

平和統一의 先行條件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해서 “平和統一을 위한 先行條件은”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3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86.9 %가 ‘信賴를 回復하고 同質性을 찾아야 한다’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表 31〉 平和統一의 先行條件에 대한 認識의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1.1	4.7	86.9	7.3	100

## 6) 北韓이 主張하는 所謂( 僞裝 ) ‘平和統一’에 대한 認識

北韓이 主張하는 ‘平和統一’의 意味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해 “北韓 共產集團이 말하는 ‘平和統一’의 意味는”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32>에 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9.4%가 ‘駐韓美軍이 撤收하면 南北對話를 하자는 것이 다’, 2.0%가 ‘우리가 提議하는 統一方法과 같다’, 64.0%가 ‘暴力革命에 의 한 統一方法을 말한다’, 24.6%가 ‘大規模 戰爭에 의한 統一方法을 말한다’라 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北韓이 主張하는 所謂( 僞裝 ) ‘平和統一’에 대한 意味가 ‘暴力革命에 의한 統一方法이다’는 反應은 比較的 높다고 하겠으나, 36.0%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注目된다.

<表 32>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 學年別, 居住地別로는 北韓이 主張하는 所謂( 僞裝 ) ‘平和統一’은 女子( 64.1%)가 男子( 63.8%) 보다, 中·高等學生 共히 學年이 높을 수록, 市( 75.3%)가 邑( 56.1%) 보다 比較的 높게 “暴力革命에 의한 統一方法을 말한다”라는 反應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家長의 職業別과 宗教別로는 公務員(70.7%), 會社員(69.9%) 및 商業(67.0%) 이 農業(61.3%)과 無職(61.8%) 보다, 無教( 67.3%)가 其他宗教(56.4%) 보다 “北韓이 말하는 ‘平和統一’의 意味는 暴力革命에 의한 統一方法을 말한다”는 反應傾向을 높게 보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北韓이 말하는 ‘平和統一’의 意味는 暴力革命에 의한 統一方法을 말한다”는 反應은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4.0%), 이러한 反應傾向은 中·高等學生 共히 學年이 높을 수록, 市( 75.3%), 公務員( 70.7%)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居住地別 邑( 56.1%), 宗教別 其他宗教( 56.4%) 등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7) 統一時期의 展望

統一時期의 展望에 대한 感情的 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모든 狀況을 判斷해

〈表 32〉 北韓이 主張하는 所謂(偽裝) ‘平和統一’에 대한 認識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①	②	③	④	計
1,254	9.4	2.0	64.0	24.6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因構成比	反 應 区 分 (%)			
			①	②	③	④
性 別	男	51.8	10.3	1.8	63.8	24.0
	女	48.2	8.4	2.2	64.1	25.3
學 年 別	中 1	19.8	11.7	3.2	38.7	46.4
	中 2	18.3	9.1	1.7	59.6	29.6
	中 3	19.7	7.3	2.0	79.4	11.3
	高 1	21.8	9.2	1.5	70.3	19.0
	高 2	20.4	9.8	1.6	70.7	18.0
居 住 地 別	市	35.2	5.2	1.1	75.3	18.3
	邑	39.4	11.1	2.4	56.1	30.4
	面	25.4	12.6	2.5	60.4	24.5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10.3	0.0	70.7	19.0
	會 社 員	8.2	6.8	1.0	69.9	22.3
	商 業	14.5	6.0	1.6	67.0	25.3
	農 業	62.6	10.8	2.2	61.3	25.7
	軍 人	1.0	7.7	0.0	84.6	7.7
	無 職	4.4	3.6	7.3	61.8	27.3
宗 教 別	佛 教	34.4	9.7	2.1	61.6	26.6
	基 督 教	16.4	9.3	0.5	62.0	28.3
	其 他 宗 教	4.4	14.5	1.8	56.4	27.3
	宗 教 없 음	44.8	8.7	2.5	67.3	21.5

보면 統一時期가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5.0%가 ‘그렇다’, 24.6%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 $M=3.15$ ) 統一時期에 대한 肯定的 反應은 否定的 反應에 비해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라는 反應이 75.0%나 되어 特히 注目된다.

<表 33>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 ( $P<.0005$ )과 學年別·居住地別 ( $P<.0001$ )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統一時期의 展望에 대한 肯定的 反應傾向은 女子 ( $M=3.25$ )가 男子 ( $M=3.06$ ) 보다, 대체로 學年이 낮을 수록 그리고 面 ( $M=3.29$ )이 市 ( $M=3.10$ )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家長의 職業別과 宗教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宗教別 其他宗教 ( $M=3.42$ )가 높게, 職業別 公務員 ( $M=3.03$ )과 會社員 ( $M=3.09$ )集團 등이 낮게 統一時期의 展望에 대한 肯定的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統一時期의 展望에 대한 肯定的 反應은 否定的 反應 보다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35.0%),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라는 反應이 75.0%나 되어 特히 注目된다.

#### 8) 統一 後의 狀態에 대한 感情

統一 後의 狀態에 대한 感情的 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統一이 되면 南·北韓 住民의 融合은 別 問題가 없을 것이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34.5%가 ‘그렇다’, 43.1%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나타내어 ( $M=2.94$ ), 統一 後의 狀態에 대한 否定的 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어 注目된다.

<表 34>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學年別·居住地別 ( $P<.0001$ )과 家長의 職業別 ( $P<.05$ )에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學年이 높을 수록, 市 ( $M=2.72$ )가 面 ( $M=3.26$ ) 보다, 公務員 ( $M=2.70$ ) 無職 ( $M=2.71$ )과 商業 ( $M=2.74$ )이 農業 ( $M=3.05$ ) 보다 統一 後의 狀

〈表 33〉 統一時期의 展望에 대한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15	1.02	10.1	24.9	40.4	19.1	5.5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06	1.06	20.3301	8.9	24.8	36.9	22.0	7.4	△
	女	48.2	3.25	0.97		11.4	25.0	44.0	16.1	3.5	
學 年 別	中 1	19.8	3.43	1.04	67.0950	16.1	31.0	36.7	11.7	4.4	△°
	中 2	18.3	3.37	0.96		13.5	28.3	42.6	13.0	2.6	
	中 3	19.7	3.04	1.04		8.5	21.9	43.3	17.8	8.5	
	高 1	21.8	2.97	0.96		6.6	19.0	44.7	23.8	5.9	
	高 2	20.4	2.98	1.02		6.6	25.0	34.4	28.1	5.9	
居 住 地 別	市	35.2	3.10	1.09	36.4390	11.5	23.8	33.5	25.3	5.9	△°
	邑	39.4	3.11	0.98		7.5	24.5	46.4	14.8	6.9	
	面	25.4	3.29	0.98		12.3	27.0	40.6	17.3	2.8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3.03	1.08	23.4765	9.5	23.3	35.3	24.1	7.8	
	會 社 員	8.2	3.09	1.16		9.7	32.0	25.2	23.3	9.7	
	商 業	14.5	3.16	1.05		12.1	21.4	42.9	17.6	6.0	
	農 業	62.6	3.18	0.99		9.9	24.8	42.8	17.8	4.6	
	軍 人	1.0	3.15	0.99		7.7	30.8	30.8	30.8	0.0	
	無 職	4.4	3.11	1.03		9.1	25.5	38.2	21.8	5.5	
宗 教 別	佛 教	34.4	3.15	1.03	13.9164	10.2	24.3	42.4	16.7	6.5	
	基 督 教	16.4	3.12	1.03		9.3	27.3	34.6	23.9	4.9	
	其 他 宗 教	4.4	3.42	0.92		10.9	36.4	38.2	12.7	1.8	
	宗 教 沒 有	44.8	3.13	1.02		10.3	23.3	41.1	19.9	5.3	

△ P < .0005 , △° P < .0001

〈表 34〉 統一 後의 狀態에 對한 感情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體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區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1,254	2.94	1.21	12.7	21.8	22.4	33.1	10.0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區分	變 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區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2.94	1.23	4.5831	13.1	22.6	20.0	33.8	10.5
	女	48.2	2.94	1.18		12.3	21.0	25.0	32.3	9.4
學 年 別	中 1	19.8	3.25	1.19	56.1068	16.9	28.6	23.8	23.8	6.9
	中 2	18.3	3.20	1.22		19.6	22.2	22.6	30.4	5.2
	中 3	19.7	2.86	1.20		11.7	19.4	23.5	34.0	11.3
	高 1	21.8	2.81	1.20		10.3	20.9	20.9	35.5	12.5
	高 2	20.4	2.63	1.11		5.9	18.4	21.5	41.0	13.3
居 住 地 別	市	35.2	2.72	1.19	42.1652	10.2	16.5	21.3	39.1	12.9
	邑	39.4	2.93	1.20		11.7	23.1	22.9	31.4	10.9
	面	25.4	3.26	1.17		17.6	27.4	23.3	27.4	4.4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2.70	1.22	35.5171	11.2	16.4	17.2	41.4	13.8
	會 社 員	8.2	2.85	1.14		9.7	18.4	30.1	31.1	10.7
	商 業	14.5	2.74	1.19		11.0	14.3	25.3	36.3	13.2
	農 業	62.6	3.05	1.21		13.9	25.4	21.4	30.7	8.7
	軍 人	1.0	3.08	1.38		15.4	30.8	15.4	23.1	15.4
無 職	4.4	2.71	1.08	9.1	12.7	25.5	45.5	7.3		
宗 教 別	佛 教	34.4	3.04	1.24	18.7914	15.3	23.1	21.1	31.0	9.5
	基 督 教	16.4	2.95	1.24		12.7	23.9	20.5	31.2	11.7
	其 他 宗 教	4.4	3.05	0.95		5.5	29.1	32.7	30.9	1.8
	宗 教 沒 有	44.8	2.86	1.19		11.4	19.4	23.1	35.6	10.5

△° P < .0001 , ☆ P < .05



態에 대한 否定的 反應을 높게 보이고 있다.

性別·宗教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無教(M=2.86)가 다른 集團에 比하여 否定的 反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統一이 되면 南北韓 住民의 融合은 別 問題가 없을 것이다”에 대한 否定的 反應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43.1%), 特히 學年이 높을 수록, 市(52.0%)가 面(31.8%)보다, 公務員(55.2%)과 無職(52.8%) 그리고 無教(46.1%)集團 등에서 否定的 反應傾向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 9) 南北交流에 대한 期待感

南北交流에 대한 期待感を 測定하기 위하여 “南北韓間에 文化·스포츠·書信·訪問 등의 交流를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92.2%가 ‘그렇다’, 2.9%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여(M=4.69) 南北交流에 대한 期待感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35> 南北交流에 대한 期待感의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區 分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1,254	4.69	0.75	80.7	11.5	4.9	1.7	1.2	100

### 10) 北韓의 統一方案에 대한 批判能力感

北韓의 統一方案에 대한 批判能力感を 測定하기 위하여 “나는 北韓共產集團이 主張하는 統一方案의 虛構成을 批判할 수 있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75.9%가 ‘그렇다’, 5.2%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M=4.19) 北韓의 統一方案에 대한 批判能力感은 比較的 높은 肯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表 36〉 北韓의 統一方案에 대한 批判 能力感의 全體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1,254	4.19	0.98	49.7	26.2	18.9	3.5	1.7	100

### 11) 統一에 대한 意志

統一에 대한 意志水準을 測定하기 위해 “祖國統一은 어떠한 犧牲을 치루고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問項을 提示한 바, 〈表 3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68.7%가 肯定的 反應을, 22.0%가 否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M = 3.93)

〈表 37〉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P < .005) 女子 (M = 4.07)가 男子 (M = 3.80)보다 統一意志를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學年別과 居住地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統一에 대한 意志는 高等學生과 市 (M = 4.04)集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家長의 職業別과 宗教別에서도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無職 (M = 4.11)과 會社員 (M = 4.08)이 높게, 其他宗教 (M = 3.82)集團이 낮게 統一에 대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統一에 대한 意志는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8.7%), 이러한 反應傾向은 女子 (72.7%) 그리고 無職 (74.6%)集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2)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度

우리側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度を 測定하기 위하여 “우리의 主張에 의한 統一이 아니면 지금 이대로 있는 편이 낫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9%가 ‘그렇다’, 27.2%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나타내

<表 37> 統一에 대한 意志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區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93	1.36	53.5	15.2	9.3	14.8	7.2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區分	變 因 構 成 比	M	S·D	χ <sup>2</sup>	反 應 區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80	1.43	16.8449	50.2	14.9	8.5	17.5	8.9
	女	48.2	4.07	1.27		57.1	15.6	10.3	11.8	5.3
學 年 別	中 1	19.8	3.77	1.44	18.5369	49.2	14.5	9.7	17.3	9.3
	中 2	18.3	3.77	1.41		48.3	13.9	11.3	19.1	7.4
	中 3	19.7	4.00	1.31		54.3	16.6	10.5	12.6	6.1
	高 1	21.8	3.99	1.33		54.2	17.2	8.4	13.6	6.6
	高 2	20.4	4.11	1.32		60.9	13.7	7.0	11.7	6.6
居 住 地 別	市	35.2	4.04	1.29	12.8801	56.1	15.6	9.0	14.5	4.8
	邑	39.4	3.87	1.43		53.4	14.2	7.9	15.0	9.5
	面	25.4	3.88	1.35		50.0	16.4	11.9	14.8	6.9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3.91	1.37	10.0765	51.7	18.1	6.9	16.4	6.9
	會 社 員	8.2	4.08	1.27		57.3	14.6	12.6	9.7	5.8
	商 業	14.5	3.97	1.36		54.9	14.8	9.9	12.6	7.7
	農 業	62.6	3.89	1.39		52.7	14.6	9.2	15.8	7.6
	軍 人	1.0	4.15	1.14		53.8	23.1	7.7	15.4	0.0
	無 職	4.4	4.11	1.23		56.4	18.2	9.1	12.7	3.6
宗 教 別	佛 教	34.4	3.96	1.36	6.0643	55.6	13.2	9.3	15.5	6.5
	基 督 教	16.4	3.96	1.38		55.1	15.6	7.3	14.1	7.8
	其 他 宗 教	4.4	3.82	1.45		50.9	14.5	10.9	12.7	10.9
	宗 教 沒 有	44.8	3.91	1.35		51.6	16.7	10.0	14.6	7.1

\* P < .005

〈表 38〉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度の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別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52	1.38	33.9	22.0	16.9	16.2	11.0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別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42	1.42	12.3658	31.4	22.8	15.2	17.4	13.2	☆
	女	48.2	3.62	1.34		36.6	21.2	18.7	14.9	8.6	
學 年 別	中 1	19.8	3.40	1.40	18.4305	31.0	19.8	18.5	19.0	11.7	
	中 2	18.3	3.48	1.39		31.7	24.3	16.5	15.2	12.2	
	中 3	19.7	3.51	1.36		31.2	26.3	15.4	16.2	10.9	
	高 1	21.8	3.56	1.34		34.8	21.2	17.2	18.7	8.1	
	高 2	20.4	3.63	1.43		40.2	18.8	16.8	11.7	12.5	
居 住 地 別	市	35.2	3.68	1.37	22.0478	40.0	21.9	12.7	16.5	8.8	*
	邑	39.4	3.44	1.41		31.4	22.5	18.0	14.8	13.4	
	面	25.4	3.41	1.35		29.2	21.4	21.1	17.9	10.4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3.59	1.36	27.0332	37.9	17.2	19.0	18.1	7.8	
	會 社 員	8.2	3.64	1.52		44.7	19.4	4.9	17.5	13.6	
	商 業	14.5	3.60	1.34		35.2	22.5	19.8	12.6	9.9	
	農 業	62.6	3.48	1.37		31.8	22.9	17.8	16.2	11.2	
	軍 人	1.0	3.92	1.26		46.2	23.1	7.7	23.1	0.0	
	無 職	4.4	3.24	1.47		27.3	21.8	14.5	20.0	16.4	
宗 教 別	佛 教	34.4	3.44	1.38	9.0696	31.3	22.0	17.4	18.3	11.1	
	基 督 教	16.4	3.43	1.44		33.7	19.5	16.1	17.6	13.2	
	其他宗教	4.4	3.47	1.33		30.9	20.0	23.6	16.4	9.1	
	宗教없음	44.8	3.61	1.37		36.3	23.1	16.2	14.1	10.3	

☆ P < .05      \* P < .005

어 (  $M = 3.52$  )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度는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7.2%의 否定的 反應은 注目된다.

〈表 38〉에 나타난 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 (  $P < .05$  )과 居住地別 (  $P < .005$  )에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女子 (  $M = 3.62$  )가 男子 (  $M = 3.42$  ) 보다, 市 (  $M = 3.68$  )가 面 (  $M = 3.41$  ) 보다 “우리의 主張에 의한 統一이 아니면 지금 이대로 있는 편이 낫다”는 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學年別, 家長의 職業別 및 宗教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度가 높은 集團과 낮은 集團을 比較해 보면, 學年이 높을 수록, 會社員 (  $M = 3.64$  )과 商業 (  $M = 3.60$  )이 無職 (  $M = 3.24$  )이나 農業 (  $M = 3.48$  )보다 그리고 無教 (  $M = 3.61$  )集團이 他宗教集團에 比해 比較的 높은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우리의 主張에 의한 統一이 아니면 지금 이대로 있는 편이 낫다”는 反應은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55.9% ), 이러한 反應傾向은 女子 ( 57.8% ), 市 ( 61.9% ) 등에서 높게, 無職 ( 49.1% )集團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否定的 反應도 27.2%나 되고 있어 注目된다.

#### 4. 安 保

安保에 관한 中·高等學生들의 認識性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11개의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行動次元으로 區分하여 測定하고자 하는 意識內容을 提示하면, 認知水準에서는 安保의 一般的 認識, 北傀의 南侵準備에 대한 認識, 自主國防에 대한 認識, 南北軍事力 比較, 北傀의 南侵時 中·蘇의 支援 態度 等이며, 情意水準에서는 靑少年의 安保意識, 北傀의 再侵 可能性 與否, 安保를 위한 核武器 保有 與否,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에 대한 信賴感 等이고 意志水準에서는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度, 北韓의 武力南侵時 行動 等이다.

### 1) 安保의 一般的 認識

安保를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測定하기 위해 “安保는 무엇을 意味하는가”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3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62.5%가 ‘國土는 勿論 國民의 財產·生命을 保護하자는 것’이란 反應을 보여, 37.5%가 安保의 一般的 意味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9>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과 學年別로는 男子(64.8%)가 女子(60.1%)보다, 高等學生이 中學生보다 比較的 安保의 一般的 認識에 높게 反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居住地別, 家長의 職業別과 宗教別로는 市(70.6%)가 面(52.2%)보다, 公務員(69.8%)과 商業(67.6%)이 農業(60.3%)과 無職(61.8%)보다 그리고 無教(64.8%)가 其他宗教(52.7%)보다 “安保는 國土는 勿論 國民의 財產·生命을 保護하자는 것”이라는 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62.5%가 安保란 ‘國土는 勿論 國民의 財產·生命을 保護하자는 것’이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居住地別 市(70.6%), 職業別 公務員(69.8%) 集團 등에서 이러한 傾向을 높게, 居住地別 面(52.2%)과 宗教別 其他宗教(52.7%) 集團 등에서 이러한 反應傾向을 낮게 보이고 있다.

### 2) 北傀의 南侵準備에 대한 認識

北傀의 南侵準備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北韓의 ‘3大革命力量의 強化’ 및 ‘4大軍事路線’이 意味하는 것은”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0>에 나타난 바와 같이 88.4%가 ‘北韓共產集團이 南侵準備強化를 위한 것’이라는 反應을 보여, 11.6%만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自主國防에 대한 認識

自主國防에 대한 認識을 測定하기 위해 “인도차이나半島의 共產化 過程으로 보아 우리에게 가장 時急한 課題는”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1>에 나타난

〈表 39〉 安保의 一般의 認識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①	②	③	④	計
1,254	8.2	3.6	25.7	62.5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因構成比	反 應 区 分 (%)			
			①	②	③	④
性 別	男	51.8	7.2	3.1	24.9	64.8
	女	48.2	9.3	4.1	26.5	60.1
學 年 別	中 1	19.8	14.9	7.3	29.8	48.0
	中 2	18.3	7.8	3.9	34.8	53.5
	中 3	19.7	5.3	1.2	23.1	70.4
	高 1	21.8	5.5	2.2	25.3	67.0
	高 2	20.4	7.8	3.5	16.4	72.3
居 住 地 別	市	35.2	5.0	2.5	21.9	70.6
	邑	39.4	8.9	3.2	25.9	61.9
	面	25.4	11.6	5.7	30.5	52.2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8.6	1.7	19.8	69.8
	會 社 員	8.2	8.7	2.9	25.2	63.1
	商 業	14.5	5.5	2.2	24.7	67.6
	農 業	62.6	9.0	4.3	26.4	60.3
	軍 人	1.0	7.7	0.0	30.8	61.5
	無 職	4.4	3.6	3.6	30.9	61.8
宗 教 別	佛 教	34.4	7.6	3.9	27.8	60.6
	基 督 教	16.4	5.9	2.0	29.3	62.9
	其他宗教	4.4	21.8	1.8	23.6	52.7
	宗教없음	44.8	8.2	4.1	23.0	64.8

〈表 40〉 北傀의 南侵準備에 대한 認識의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4.6	4.8	2.2	88.4	100

〈表 41〉 自主國防에 대한 認識의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89.8	3.3	1.2	5.7	100

바와 같이 全體應答者의 89.8%가 ‘自主國防態勢確立’이란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인도차이나半島의 共產化 過程이 주는 敎訓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南北軍事力比較

南北 軍事力 比較 時 어느 쪽이 優勢한가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南北 軍事力을 比較 했을 때 優勢한 쪽은”이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3.5%가 ‘南韓優勢’, 49.6%가 ‘北韓優勢’, 12.5%가 ‘南北對等’, 14.4%가 ‘모르겠다’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表 42〉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과 學生別로는 男子(54.5%)가 女子(44.4%)보다, 高等學生이 中學生 보다 南北 軍事力 比較 時 北韓이 優勢하다는 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居住地別, 家長의 職業別 및 宗教別로는 市(59.5%)가 邑(43.1%)보다, 無職(56.4%)과 公務員(55.2%)이 農業(47.1%)보다, 그리고 基督教(56.6%)가 他宗教 集團에 比해서 南北 軍事力은 北韓이 優勢하다는 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表 42〉 南北 軍事力 比較에 대한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23.5	49.6	12.5	14.4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 因 区 分	變因構成比	反 應 区 分 (%)			
			①	②	③	④
性 別	男	51.8	19.1	54.5	13.7	12.8
	女	48.2	28.1	44.4	11.3	16.2
學 年 別	中 1	19.8	40.7	31.0	13.3	14.9
	中 2	18.3	27.4	43.5	10.9	18.3
	中 3	19.7	15.8	58.3	13.0	13.0
	高 1	21.8	19.0	57.1	11.4	12.5
	高 2	20.4	15.2	56.6	14.1	14.1
居 住 地 別	市	35.2	18.6	59.5	11.8	10.2
	邑	39.4	25.3	43.1	13.8	17.8
	面	25.4	27.4	45.9	11.6	15.1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20.7	55.2	7.8	16.4
	會 社 員	8.2	20.4	53.4	13.6	12.6
	商 業	14.5	20.3	51.1	15.9	12.6
	農 業	62.6	25.1	47.1	12.6	15.2
	軍 人	1.0	7.7	69.2	7.7	15.4
	無 職	4.4	25.5	56.4	9.1	9.1
宗 教 別	佛 教	34.4	26.4	45.8	12.5	15.3
	基 督 教	16.4	20.5	56.6	8.3	14.6
	其 他 宗 教	4.4	30.9	45.5	9.1	14.5
	宗 教 沒 有	44.8	21.5	50.4	14.4	13.7

以上の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南北 軍事力은 49.6%가 ‘北韓優勢’라는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男子(54.5%), 高等學生, 市(59.5%) 無職(56.4%)과 公務員(55.2%) 集團 等이며, 特히 中1(31.0%)集團에서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 5) 北傀의 南侵時 中·蘇의 支援態度

北傀의 南侵時 中·蘇의 支援態度에 대한 認識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北韓 共產集團의 南侵時 中·蘇의 態度는”이란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51.5%가 ‘兩國이 軍事力을 動員하여 積極 도울 것이다’, 15.8%가 ‘兩國은 經濟的인 側面에서만 도울 것이다’, 17.6%가 ‘中共은 軍事的인 面, 蘇聯은 經濟的인 面에서 도울 것이다’, 15.1%가 ‘中共은 經濟的인 面, 蘇聯은 軍事的인 面에서 도울 것이다’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北傀의 南侵時 中·蘇 兩國은 軍事的인 面에서 도울 것이라는 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表 43> 北傀 南侵時 中·蘇의 支援 態度에 대한 全体 反應 結果

N	反 應 区 分 (%)				計
	①	②	③	④	
1,254	51.5	15.8	17.6	15.1	100

### 6) 靑少年의 安保意識

靑少年들의 安保意識을 測定하기 위하여 “靑少年들의 安保意識이 透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45.5%가 ‘그렇다’, 36.4%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어(M=3.07) 比較的 靑少年들의 安保意識에 대한 否定的 反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라는 反應도 54.5%나 되고 있다.

<表 44>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靑少年들의 安

〈表 44〉 青少年의 安保意識에 대한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07	1.22	10.3	35.2	18.1	23.9	12.5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03	1.28	15.6118	12.3	31.8	17.2	23.8	14.8	*
	女	48.2	3.11	1.16		8.1	38.7	19.0	24.0	10.1	
學 年 別	中 1	19.8	3.15	1.18	29.4138	12.1	31.9	23.8	23.0	9.3	☆
	中 2	18.3	3.10	1.22		10.4	35.7	19.6	22.2	12.2	
	中 3	19.7	2.85	1.24		8.9	27.5	20.2	26.7	16.6	
	高 1	21.8	3.05	1.25		9.9	37.4	14.3	24.9	13.6	
	高 2	20.4	3.19	1.21		10.2	43.0	13.3	22.7	10.9	
居 住 地 別	市	35.2	2.98	1.28	14.0447	10.0	34.8	14.0	25.5	15.8	
	邑	39.4	3.12	1.18		9.9	36.2	19.8	23.7	10.3	
	面	25.4	3.12	1.21		11.3	34.0	21.1	22.3	11.3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2.94	1.28	14.9348	12.9	27.6	17.2	28.4	13.8	
	會 社 員	8.2	3.04	1.31		12.6	34.0	12.6	26.2	14.6	
	商 業	14.5	2.98	1.23		8.8	33.0	20.9	22.5	14.8	
	農 業	62.6	3.12	1.20		10.2	37.3	17.8	23.4	11.2	
	軍 人	1.0	2.85	1.21		7.7	23.1	30.8	23.1	15.4	
	無 職	4.4	2.93	1.23		7.3	32.7	21.8	21.8	16.4	
宗 教 別	佛 教	34.4	3.00	1.26	14.8299	10.2	33.6	17.8	23.4	15.0	
	基 督 教	16.4	3.14	1.21		11.7	33.7	23.4	19.5	11.7	
	其他宗教	4.4	2.98	1.25		10.9	32.7	10.9	34.5	10.9	
	宗教없음	44.8	3.10	1.20		9.8	37.2	17.1	24.9	11.0	

\* P < .005 , ☆ P < .05

保意識이 透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反應이, 性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 $P < .005$ ), 女子 ( $M = 3.11$ )가 男子 ( $M = 3.03$ ) 보다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다.

學年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나 ( $P < .01$ ) 一貫性이 없다.

居住地別, 家長의 職業別 및 宗教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家長의 職業別 農業 ( $M = 3.12$ )이 높게, 無職 ( $M = 2.93$ )과 公務員 ( $M = 2.94$ )集團 등이 낮게 “靑少年들의 安保意識이 透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45.5%가 靑少年의 安保意識에 대한 否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나, 肯定的 反應도 ‘잘 모르겠다’와 함께 54.5%나 되고 있다.

#### 7) 北傀의 再侵 可能性 與否

北傀의 再侵 可能性 與否에 대한 感情的 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北韓共產集團이 再次 南侵을 敢行해 올 것이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73.0%가 肯定的 反應을, 7.0%가 否定的 反應을 보여 ( $M = 3.98$ ), 北傀의 再侵이 可能하다는 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다.

<表 45>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背景變因別 各集團間에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家長의 職業別에서 無職 ( $M = 4.13$ )과 公務員·商業 ( $M = 4.12$ )이 높게, 農業 ( $M = 3.91$ )이 낮게 北傀의 再侵 可能性 與否에 대한 肯定的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언젠가는 北韓共產集團이 再次 南侵을 敢行해 올 것이다”라는 反應은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으며 (73.0%), 特히 家長의 職業別로 無職 (80.0%)인 集團에서 이러한 反應傾向을 높게 보이고 있다.

#### 8) 核武器 保有與否

安保를 위한 核武器 保有與否에 대한 感情的 性向을 測定하기 위하여 “國家安保

〈表 45〉 北傀의 再侵 可能性 與否에 대한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98	0.96	34.1	38.9	20.0	5.2	1.8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 成 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98	0.98	3.6194	34.3	39.2	19.1	4.9	2.5
	女	48.2	3.99	0.93		33.9	38.6	20.9	5.5	1.2
學 年 別	中 1	19.8	4.03	0.90	16.0037	33.9	42.7	17.3	4.8	1.2
	中 2	18.3	3.94	0.98		31.7	41.3	18.7	5.7	2.6
	中 3	19.7	4.06	0.93		39.7	33.2	22.3	3.6	1.2
	高 1	21.8	4.00	0.94		34.1	39.2	20.9	4.0	1.8
	高 2	20.4	3.88	1.01		31.3	38.3	20.3	7.8	2.3
居 住 地 別	市	35.2	4.01	0.97	6.4043	35.3	40.0	17.4	4.8	2.5
	邑	39.4	3.95	0.96		33.2	37.0	22.7	5.7	1.4
	面	25.4	4.00	0.94		34.0	40.3	19.2	5.0	1.6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4.13	0.92	23.8936	40.5	37.9	16.4	3.4	1.7
	會 社 員	8.2	3.98	1.01		34.0	42.7	13.6	6.8	2.9
	商 業	14.5	4.12	0.83		36.3	43.4	17.0	2.7	0.5
	農 業	62.6	3.91	0.98		31.8	37.7	22.5	5.9	2.0
	軍 人	1.0	4.38	0.96		61.5	23.1	7.7	7.7	0.0
	無 職	4.4	4.13	0.92		40.0	40.0	14.5	3.6	1.8
宗 教 別	佛 教	34.4	3.96	0.99	7.2278	34.0	38.2	19.4	6.0	2.3
	基 督 教	16.4	4.05	0.98		39.0	35.6	19.0	3.9	2.4
	其 他 宗 教	4.4	3.95	0.99		32.7	40.0	18.2	7.3	1.8
	宗 教 없 음	44.8	3.98	0.92		32.6	40.6	20.8	4.8	1.2

를 위해 우리도 核武器를 保有했으면 좋겠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46.4%가 肯定的 反應을, 33.8%가 否定的 反應을 나타내어 (M=3.28), 國家安保를 위해 核武器를 保有 했으면 하는 反應이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否定的 反應도 33.8%나 되어 特異하다.

<表 46>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學年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P<.01), 대체로 學年이 높을 수록 國家安保를 위해 核武器를 保有했으면 하는 反應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

性別과 居住地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男子 (M=3.35)가 女子 (M=3.21) 보다, 邑 (M=3.39)이 市 (M=3.18) 보다 核武器 保有與否에 대한 比較的 높은 肯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家長의 職業과 宗教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公務員 (M=3.45)이 높게, 其他宗教 (M=2.73) 集團이 낮게 核武器 保有與否에 대한 肯定的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核武器 保有與否에 대한 肯定的 反應은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으나 (46.4%), 否定的 反應도 33.8%나 되어 特異하다. 또한 學年이 높을 수록, 家長의 職業別 公務員 (52.6%)이 肯定的 反應을 높게, 宗教別 其他宗教 (32.7%) 集團이 肯定的 反應을 낮게 보이고 있는 것은 特異하다.

## 9)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에 대한 信賴感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에 대한 信賴感을 測定하기 위하여 “美國의 韓國安保에 대한 防衛公約은 充分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42.7%가 ‘그렇다’, 33.1%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여 (M=3.17)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은 믿을 수 있다는 反應이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으나, 否定的 反應도 33.1%나 되어 注目된다.

<表 47>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分析해 보면, 學年別과 居住地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P<.01),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에 대한 信賴度는, 대체로 學年이 낮을 수록, 邑 (M=3.18)이 市 (M=3.15) 보다 比較的 높게 나

<表 46> 核武器保有與否에 대한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28	1.48	32.2	14.2	19.8	17.2	16.6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 成 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35	1.49	4.9360	34.8	14.3	18.3	16.3	16.3
	女	48.2	3.21	1.46		29.5	14.1	21.4	18.2	16.9
學 年 別	中 1	19.8	2.94	1.45	57.4737	22.2	12.9	23.8	19.0	22.2
	中 2	18.3	3.21	1.53		33.9	10.0	17.0	21.3	17.8
	中 3	19.7	3.12	1.42		24.7	16.6	21.9	19.8	17.0
	高 1	21.8	3.42	1.43		34.1	16.1	20.5	16.5	12.8
	高 2	20.4	3.69	1.47		45.7	14.8	15.6	10.2	13.7
居 住 地 別	市	35.2	3.18	1.51	14.4846	30.3	14.3	17.2	19.5	18.8
	邑	39.4	3.39	1.48		34.8	15.6	19.4	14.2	16.0
	面	25.4	3.26	1.44		30.8	11.9	23.9	18.9	14.5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3.45	1.53	17.4897	40.5	12.1	13.8	19.0	14.7
	會 社 員	8.2	3.24	1.53		34.0	11.7	16.5	20.4	17.5
	商 業	14.5	3.23	1.50		31.3	13.7	19.2	17.6	18.1
	農 業	62.6	3.28	1.45		30.7	14.6	21.9	16.9	15.8
	軍 人	1.0	3.46	1.56		38.5	15.4	15.4	15.4	15.4
無 職	4.4	3.25	1.64	34.5	18.2	10.9	10.9	25.5		
宗 教 別	佛 教	34.4	3.22	1.45	16.9368	29.4	14.8	20.8	18.8	16.2
	基 督 教	16.4	3.23	1.53		32.7	12.7	19.5	15.6	19.5
	其 他 宗 教	4.4	2.73	1.52		20.0	12.7	18.2	18.2	30.9
	宗 教 없 음	44.8	3.40	1.47		35.4	14.4	19.2	16.5	14.4

$\Delta^{\circ}$  P < .0001

〈表 47〉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에 대한 信賴感의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17	1.21	15.6	27.1	24.2	24.4	8.7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15	1.21	2.0944	14.6	28.3	23.4	24.8	8.9
	女	48.2	3.18	1.21		16.7	25.8	25.0	24.0	8.4
學 年 別	中 1	19.8	3.39	1.23	33.2682	21.4	30.6	21.4	19.0	7.7
	中 2	18.3	3.22	1.29		19.1	27.4	20.9	21.3	11.3
	中 3	19.7	3.06	1.16		13.4	21.9	30.8	25.5	8.5
	高 1	21.8	3.16	1.16		13.2	30.0	24.2	25.3	7.3
	高 2	20.4	3.00	1.18		11.7	25.4	23.4	30.5	9.0
居 住 地 別	市	35.2	3.15	1.19	21.2369	13.8	30.8	19.9	27.8	7.7
	邑	39.4	3.18	1.21		15.8	26.7	27.5	19.8	10.1
	面	25.4	3.16	1.23		17.9	22.6	24.8	26.7	7.9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3.00	1.32	30.7415	15.5	25.9	15.5	29.3	13.8
	會 社 員	8.2	3.18	1.25		14.6	34.0	17.5	23.3	10.7
	商 業	14.5	3.14	1.19		14.8	28.0	19.8	31.3	6.0
	農 業	62.6	3.19	1.18		15.7	26.4	28.0	21.7	8.3
	軍 人	1.0	3.15	1.28		15.4	30.8	15.4	30.8	7.7
無 職	4.4	3.15	1.31	20.0	23.6	16.4	30.9	9.1		
宗 教 別	佛 教	34.4	3.18	1.19	12.1591	14.8	27.3	28.0	20.6	9.3
	基 督 教	16.4	3.07	1.20		13.2	26.8	22.4	28.8	8.8
	其他宗教	4.4	3.36	1.22		21.8	27.3	21.8	23.6	5.5
	宗教없음	44.8	3.17	1.23		16.5	27.0	22.1	25.8	8.5

☆° P < .01



타나고 있다.

其他背景變因別集團間에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宗教別로 其他宗教(M=3.36)集團이 높은, 職業別로 公務員(M=3.00)集團이 낮은 信賴度를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에 대한 信賴度는 肯定的反應을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으나(42.7%), 否定的反應도 33.1%나 되어 注目된다.

#### 10)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度

北傀의 南侵時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感을 測定하기 위하여 “北韓共產集團 南侵時 우리 나라는 이를 막아낼 힘이 充分히 있다”라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64.4%가 ‘그렇다’, 11.8%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보여 (M=3.84)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感은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라는 反應이 35.6%나 되어 注目된다.

<表 48>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P<.05)과 學年別(P<.01)에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度는, 女子(M=3.95)가 男子(M=3.74)보다 높게, 中學生이 高等學生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다.

其他背景變因別에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宗教別로 其他宗教(M=4.05)가 높게, 職業別 無職(M=3.75)이 낮은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度를 나타내고 있다.

以上の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度는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64.4%), ‘잘 모르겠다’와 함께 否定的反應이 35.6%나 되어 注目된다. 또한 宗教別 其他宗教(74.5%)가 높게, 職業別 無職(56.3%)이 낮게 反應하고 있는 것은 特異하다.

#### 11) 北韓의 武力南侵時 行動

北韓의 武力南侵時 行動에 대한 意志水準을 測定하기 위하여 “나는 北韓共產集

〈表 48〉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度の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計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1,254	3.84	1.08	34.5	29.9	23.8	9.0	2.8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 成 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겠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3.74	1.11	11.7255	30.9	30.2	24.9	10.5	3.5
	女	48.2	3.95	1.04		38.4	29.6	22.5	7.5	2.0
學 年 別	中 1	19.8	4.05	1.01	37.4000	41.5	32.7	17.3	6.5	2.0
	中 2	18.3	3.95	1.12		41.7	26.1	20.9	7.8	3.5
	中 3	19.7	3.70	1.10		29.6	27.5	28.7	11.3	2.8
	高 1	21.8	3.75	1.08		29.7	30.4	28.9	7.0	4.0
	高 2	20.4	3.79	1.07		31.3	32.4	22.3	12.5	1.6
居 住 地 別	市	35.2	3.76	1.09	7.3938	30.3	32.1	24.9	9.0	3.6
	邑	39.4	3.90	1.08		37.9	28.3	22.7	8.7	2.4
	面	25.4	3.86	1.07		35.2	29.2	23.9	9.4	2.2
家 長 的 職 業 別	公 務 員	9.3	3.73	1.10	11.5858	28.4	33.6	25.0	8.6	4.3
	會 社 員	8.2	3.89	1.08		36.9	30.1	20.4	10.7	1.9
	商 業	14.5	3.79	1.11		31.9	32.4	22.0	9.9	3.8
	農 業	62.6	3.88	1.07		35.9	29.3	23.7	8.7	2.4
	軍 人	1.0	3.69	0.95		23.1	30.8	38.5	7.7	0.0
	無 職	4.4	3.75	1.14		34.5	21.8	30.9	9.1	3.6
宗 教 別	佛 教	34.4	3.81	1.14	10.4491	34.7	29.6	21.8	9.7	4.2
	基 督 教	16.4	3.85	1.05		33.7	30.7	24.4	9.3	2.0
	其 他 宗 教	4.4	4.05	1.06		43.6	30.9	14.5	9.1	1.8
	宗 教 沒 有	44.8	3.85	1.05		33.8	29.7	26.0	8.4	2.1

☆ P < .05

\* P < .005

〈表 49〉 北韓의 武力南侵時 行動에 대한 全体 및 背景變因別 反應 結果

(1) 全体 反應 結果

N	M	S·D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計
1,254	4.07	1.05	47.4	21.4	24.9	3.5	2.8	100

(2) 背景變因에 따른 反應 結果

變 因	變因区分	變 因 構成比	M	S·D	$\chi^2$	反 應 区 分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性 別	男	51.8	4.17	1.06	35.4902	52.0	22.5	19.7	2.0	3.8	△°
	女	48.2	3.97	1.04		42.4	20.4	30.5	5.1	1.7	
學 年 別	中 1	19.8	3.86	1.12	65.2473	37.9	23.4	28.2	6.5	4.0	△°
	中 2	18.3	3.90	1.23		45.2	18.7	23.9	5.7	6.5	
	中 3	19.7	4.10	0.99		48.6	16.6	32.0	1.6	1.2	
	高 1	21.8	4.16	0.99		50.9	20.5	24.2	2.9	1.5	
	高 2	20.4	4.31	0.87		53.5	27.7	16.4	1.2	1.2	
居 住 地 別	市	35.2	4.03	1.05	23.8544	44.6	22.9	26.5	3.4	2.7	*
	邑	39.4	4.21	0.99		54.0	18.4	23.5	2.2	1.8	
	面	25.4	3.92	1.13		40.9	24.2	24.8	5.7	4.4	
家 長 의 職 業 別	公 務 員	9.3	4.06	1.02	21.4332	43.1	28.4	22.4	3.4	2.6	
	會 社 員	8.2	4.13	1.19		57.3	12.6	20.4	4.9	4.9	
	商 業	14.5	3.98	1.02		40.7	24.2	30.2	2.2	2.7	
	農 業	62.6	4.08	1.05		48.3	20.5	25.0	3.6	2.7	
	軍 人	1.0	4.38	0.77		53.8	30.8	15.4	0.0	0.0	
	無 職	4.4	4.07	1.03		45.5	25.5	21.8	5.5	1.8	
宗 教 別	佛 教	34.4	4.03	1.14	27.1712	48.8	18.3	25.5	2.3	5.1	☆°
	基 督 教	16.4	4.00	1.07		44.4	22.4	24.4	6.8	2.0	
	其他宗教	4.4	4.18	0.96		52.7	16.4	27.3	3.6	0.0	
	宗教없음	44.8	4.11	0.99		46.8	24.0	24.4	3.2	1.6	

△° P < .0001 , \* P < .005 , ☆ P < .01

團이 戰爭을 일으키면 즉각 參與하여 싸우겠다”는 問項을 提示한 結果, 〈表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68.8%가 ‘그렇다’, 6.3%가 ‘아니다’라는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M = 4.07)

〈表 49〉에 나타난 全體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과 學年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P < .001), 男子 (M = 4.17)가 女子 (M = 3.97) 보다, 學年이 높을 수록 肯定的 反應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

居住地別 (P < .005)과 宗教別 (P < .01)에서도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邑 (M = 4.21)이 面 (M = 3.92) 보다, 其他宗教 (M = 4.18)가 基督教 (M = 4.00) 보다 높은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다.

以上の 反應結果를 要約해 보면, 北韓의 武力南侵 時 行動에 대한 肯定的 反應은 比較的 높게 보이고 있으며 (68.8%) 이러한 反應傾向은 男子 (74.5%), 學年이 높을 수록, 邑 (72.4%) 集團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 IV. 結論：要約 및 提言

### 1. 要 約

本 研究는 中·高等學生의 統一安保意識을 調査·分析하여 그들의 統一安保意識 傾向을 把握하는데 도움을 줌은 勿論, 統一安保教育을 改善하는데 있어 基礎資料로 提供하려는 目的을 두고 있다.

研究方法은 中·高等學校의 道德과 國民倫理 教科에 나타난 統一安保 關係內容을 分析하고, 先行研究內容을 參考로 하여 統一安保意識에 대한 方向을 設定한 後 態度構成理論을 土臺로 統一安保意識 概念模型을 設定하였다. 그 概念模型은, 行 動次元에서 認知·情意·意志, 內容次元에서 共產主義, 北韓, 統一, 安保로 分類 하였다.

標集方法은 集落標集 (cluster sampling)에 의한 一段抽出法 (single - stage - cluster design)을 使用하였다. 標集人員은 1,800 명이었으나 ‘誠意度 檢證問項’에 一貫性이 없는 反應答紙를 除外한 實際 分析된 標集人員은 1,254 명이였다.

測定道具는 統一安保意識의 概念模型에 맞추어서 共產主義 9개, 北韓 10개, 統一 12개 및 安保 11개 등 모두 42개의 問項을 製作했으며, 이의 測定은 認知水 準에서는 閉鎖式 質問型, 情意와 意志水準은 Likert - type을 使用하였고, 또한 情意·意志水準에서는  $\chi^2$ 檢證에 의해 5개의 背景變因別 集團間 差의 有意度가 分 析되었다.

이에 따라 나타난 結果를 要約해 보면, 共產主義 次元에서 反應分布가 높은 構 成內容은, 共產國家의 政治的 特徵 (96.7%), 共產國家의 經濟現實 (93.2%), 共產國家의 人間觀 (91.9%), 共產國家의 社會的 特徵 (71.9%), 共產主義가 우리 民族傳統에의 適合性與否 (否定反應率 73.1%), 共產國家에 대한 感情 (否 定反應率 79.9%), 民主主義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 (93.7%) 등이며, 比較的 낮은 反應分布의 構成內容은 共產主義의 戰略에 대한 警戒心 (66.5%)이다.

共產主義 次元에서의 全體的인 反應傾向은 認知水準의 경우 情意와 意志水準 보다 比較的 높은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어, 共產主義에 대한 知識的인 面은 學校에서 배운대로 잘 認識하고 있다고 解釋된다. 그러나 共產國家의 社會的 特徵(71.9%) 및 共產主義가 우리 民族傳統에의 適合性與否(否定反應率 73.1%, 肯定反應率 17.0%) 등에 있어 比較的 낮은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特異하며, 共產主義의 戰略에 대한 警戒心(肯定反應率 66.5%, 否定反應率 14.8%)에 대한 反應이 낮은 것은 共產主義 ایده올로기의 戰略戰術에 대한 認識 不足에서 나타나는 傾向이라 解釋된다.

北韓 次元에서 反應分布가 높은 構成內容은 北韓의 政治現實(82.9%), 金日成 偶像化 程度(77.9%), 北韓의 經濟現實(95.3%), ‘千里馬運動’(75.8%) 北韓의 教育目標(87.1%), 北韓의 靑少年에 대한 同情心(95.3%), 北韓에서의 生活可能性與否(否定反應率 87.3%) 및 北韓의 宣傳에 대한 不信感(84.7%) 等이며, 낮은 反應分布를 나타내는 構成內容은 北韓이 우리 보다 잘 살 수 있을 可能性(否定反應率 54.9%) 및 北韓을 國家로 認定與否(否定反應率 64.1%) 等이다.

北韓 次元에서 全體的인 反應傾向은, 認知水準에서는 金日成偶像化程度(77.9%) 및 ‘千里馬運動’(75.8%) 等이 다른 問項들에 비해 낮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체로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하겠으며, 情意와 意志水準에서 各各 北韓이 우리 보다 잘 살 수 있을 可能性(否定反應率 54.9%, 肯定反應率 21.5%) 및 北韓을 國家로 認定與否(否定反應率 64.1%, 肯定反應率 20.5%) 等이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는 바 北韓의 實相을 올바르게 把握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結果라 解釋된다.

統一次元에서 反應分布가 높은 構成內容은 우리 政府의 統一方案(81.3%), 統一問題解決擔當者(國民 75.0%), 平和統一의 先行條件(86.9%), 南北交流에 대한 期待感(92.3%), 北韓의 統一方案에 대한 批判能力感(75.9%) 等이며, 낮은 反應分布를 보인 構成內容은 統一의 必要性(53.0%), 統一의 沮害要因(53.2%), 北韓이 主張하는 所謂(僞裝), ‘平和統一’의 意味(53.0%), 統

一時期展望(35.0%), 統一後南北韓住民의 融合問題(34.5%) 統一意志(68.7%) 및 “우리의 主張에 의한 統一이 아니면 지금 이대로 있는 편이 낫다”(55.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統一次元에서 全體的인 反應傾向은 認知水準에서는 統一의 必要性(53.0%), 統一阻害要因(53.2%) 및 北韓이 말하는 所謂(僞裝)‘平和統一’의 意味(53.0%) 등으로 보아 共產主義와 北韓次元에 비해 대체로 낮은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情意水準에서는 南北交流에 대한 期待感(92.2%)은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統一時期展望(肯定反應率 35.0%, 否定反應率 24.6%) 및 南北韓住民의 融合問題(肯定反應率 34.5%, 否定反應率 43.1%) 등은 悲觀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解釋된다. 意志水準에서도 統一意志(肯定反應率 68.7%, 否定反應率 22.0%) 와 우리 政府의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度(肯定反應率 55.9%, 否定反應率 27.2%) 등이 낮은 肯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注目된다.

安保次元에서 높은 反應을 보인 構成內容은 北傀의 南侵準備(88.4%), 自主國防(89.8%) 및 北傀의 再侵可能性(73.0%) 등에 不過하며, 安保의 一般的 認識(62.5%), 南北軍事力比較(北韓優勢 49.6%, 南韓優勢 23.5%), 北傀의 南侵時 中·蘇支援態度(軍事力支援 51.5%), 靑少年의 安保意識(否定反應率 45.5%), 核武器保有與否(46.4%),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에 대한 信賴感(42.7%),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度(64.4%) 및 北韓의 武力南侵時 行動(68.8%) 등의 構成內容에서 낮은 反應傾向을 보여, 分斷現實에 대한 理解와 自國利益優先이라는 國際情勢이 冷嚴한 現實 그리고 安保 및 經濟的 次元에서 共同利益을 追求해 나가는 韓·美關係에 대한 올바른 理解의 不足에서 나타나는 結果라고 解釋된다.

安保次元에서 全體的인 反應傾向을 보면 認知水準에서는 北傀의 南侵準備(88.4%), 自主國防(89.8%)을 除外한 安保의 一般的 認識(62.5%), 南北軍事力比較(北韓優勢 49.6%, 南韓優勢 23.5%), 北傀南侵時 中·蘇支援態度(軍事力支援 51.5%) 등이, 情意水準에서는 北傀의 再侵可能性與否(73.0%)를 제외한 靑少年의 安保意識(否定反應率 45.5%, 肯定反應率 36.4%), 核武器保有與否(肯定

反應率 46.4 % , 否定反應率 33.8 % ) 및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에 대한 信賴感( 肯定反應率 42.7 % , 否定反應率 33.1 % ) 等 그리고 意志水準에서는 國防能力에 대한 信賴度( 肯定反應率 64.4 % , 否定反應率 11.8 % ) , 北韓의 武力南侵時 行動( 肯定反應率 68.8 % , 否定反應率 6.3 % ) 等으로 낮은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背景變因別 反應傾向은 認知水準에서는 一貫성이 없으며, 情意와 意志水準에서는 女子가 男子 보다 肯·否定的 反應傾向을 높게 보이고 있고( 安保次元 除外 ), 情意水準에서는 대체로 高等學生이 中學生 보다 높은 肯·否定的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意志水準에서는 北韓과 統一次元の 경우 市, 安保次元에서는 會社員, 其他宗教와 無教가 佛敎와 基督敎 보다 比較的 높은 肯·否定的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다.

以上の 나타난 結果를 全體적으로 볼 때 統一安保意識에 대한 中·高等學生들의 認知水準은 比較的 높은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다 하겠으나, 그에 비해 情意와 意志水準은 낮은 反應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特히 統一과 安保次元의 認知水準의 境遇는 共產主義와 北韓次元의 그것에 비해 낮은 反應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情意 및 意志水準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中·高等學生들의 統一安保意識을 高揚함에 있어, 共產主義와 北韓次元은 價値와 態度變化教育으로 行해져야 하겠으나, 統一과 安保次元에서는 注入式教育을 兼한 價値와 態度變化教育을 指向해야 할 것이 要請된다.

## 2 . 提 言

위의 調査研究를 토대로 將次 統一安保의 主役이 될 中·高等學生들에 대한 統一安保教育의 內容에 관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가. 中·高等學生들에게, 그들의 순수한 휴머니즘이 虛偽意識으로 가득찬 共產主義者들의 策略에 利用되지 않도록 共產主義 イデオロ기를 바르게 認識하고 批判할 수 있는 內容이 強調되어야 한다.

나. 中·高等學生들로 하여금 分斷現實에 대한 冷徹한 認識을 할 수 있도록 分



斷狀況에 대한 理解를 強調하는 內容이 다루어져야 한다.

다. 分斷의 苦痛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中·高等學生들의 意識속에 北韓住民에 대한 同一體意識을 끊임없이 注入시켜 주는 內容이 補強되어야 한다.

라. 統一의 當爲性에 대한 內容이 強調되어야 한다. 統一의 當爲性에 立脚한 統一意識이야말로 統一에 대한 意志및 安保意識을 確固하게 하는 捷徑이 되기 때문이다.

마. 北韓의 實相을 經驗的·科學的으로 認識시킬 수 있는 內容이 補強되어야 한다.

바. 自國利益優先이라는 周邊強大國의 冷嚴한 現實 그리고 安保 및 經濟的 次元에서 共同利益을 追求해 나가는 韓·美關係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위한 內容이 強調되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高性俊.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序說的 研究.” 濟州大學 「論文集」第11輯. 1980.
- 教學圖書 編輯部編. 「새 綜合 教育課程 및 解說(道德·社會)」。서울: 教學圖書(株), 1977.
- 金京雄. “統一安保教育의 새로운 認識.” 「統一安保教育」第1輯. 1982.
- 金順圭. “安保意識에 대한 大學生과 勤勞者의 反應研究.” 慶南大學 「論文集」第4輯. 1977.
- 金俊燁. 「南北統一問題와 그 周邊」。서울: 一潮閣, 1979.
- 金恒元. “濟州道 住民의 反共意識 考察.” 「月巖 金宗業 教授 華甲紀念論叢」。1981.
- . “濟州道 住民의 反共意識 調查研究.” 濟州大學 「論文集(社會科學編)」第13輯. 1981.
- . “韓國大學生의 對北韓觀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大韓教育聯合會. 「教育課程」。서울: 大韓教育聯合會, 1969.
- 文敎部. 「國民學校 教育課程 解說」。서울: 教學圖書(株), 1963.
- . 「中學校 教育課程」。서울: 大韓教科書(株), 1982.
- . 「高等學校 教育課程」。서울: 大韓教科書(株), 1982.
- 閔丙天. “南北韓關係와 統一問題.” 「國民倫理研究」第12輯. 1981.
- 朴容憲. 「社會的 行動과 學習」。서울: 教育出版社, 1981.
- 朴容憲外. “現代 韓國人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韓國思想과 倫理」。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朴俊弘編. 「韓半島의 平和와 安保」。서울: 博英社, 1978.
- 柳炯鎮·姜煥國編. 「國民倫理教育概論」。서울: 螢雪出版社, 1982.

- 梁好民外編。「民族統一論의 展開」. 서울：刑成社，1982.
- 李命吉外。“地方 中學生의 勝共生活態度 分析.” 慶尙大學「論文集（人文·社會科學編）」第16輯 第2號，1977.
- 李榮德外。「國家發展에 對한 教育의 寄與」. 서울：韓國教育開發院，1976.
- 李宇榮外。“統一·安保問題에 對한 大學生의 意識構造.” 「統一政策」第3卷 第3號，1977.
- 濟州大學 統一安保研究所。「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查研究」. 1979.
- 曹點煥。“韓國國民倫理教育診斷.” 「國民倫理研究」第15號，1983.
- 趙柱泰。“統一安保問題와 精神戰力.” 「統一政策」第3卷 第3號，1977.
- 崔淞凡。“中·高等學生에 對한 統一安保教育（實態中心）.” 「統一政策」第3卷 第3號，1977.
- 韓國教育開發院。「中學校 道德（下）」1, 2, 3. 1982.
- .「中學校 道德（1, 2, 3）教師用 指導書」. 1982.
- .「高等學校 國民倫理」. 1982.
- .「高等學校 國民倫理 教師用 指導書」. 1982.
- 洪性道。“高等學校의 國民精神教育 概觀 및 發展方向.” 「國民倫理研究」第14號，1982.

## 附 錄

### < 질 문 지 >

이 질문지는 국민윤리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통일·안보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모두 숫자로 통계 처리 되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 교육 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김 치 흥

※ 해당되는 것에 ○표 하십시오. ( 1~5 )

1. 응답자의 성별 : ① 남 자            ② 여 자
2. 응답자의 현재 학년 : ① 중 1            ② 중 2            ③ 중 3  
                                  ④ 고 1            ⑤ 고 2            ⑥ 고 3
3. 응답자의 현 거주지 : ① 시            ② 읍            ③ 면
4. 가장의 직업 : ① 공무원(교원포함)    ② 회사원(기능공포함)    ③ 상업  
                                  <家長>            ④ 농업(노동포함)    ⑤ 군인            ⑥ 무직
5. 응답자의 종교 : ① 불교            ② 기독교(천주교포함)  
                                  ③ 기타종교            ④ 종교 없음

※ 다음 문항들을 읽고 바르게 설명한 것에 ○표를 하십시오. ( 6 ~ 27 )

6.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

- (     ) ① 학교 선생님
- (     ) ② 가족·친지
- (     ) ③ 신문·잡지·라디오·TV
- (     ) ④ 강연회

7. 공산국가들의 정치적 특징은?

- (     ) ① 일당 독재 체제
- (     ) ② 복수 정당제도 인정
- (     ) ③ 공평한 선거제도
- (     ) ④ 엄격한 삼권분립

8. 공산국가들의 경제 현실은?

- (     ) ① 노동자들은 생산 의욕이 높다
- (     ) ② 자본주의식 경제 방식을 도입하여 향상되고 있다.
- (     ) ③ 식료품 및 일상 소비용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     ) ④ 국방비 지출을 줄여 소비재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9. 공산국가들이 주민을 통제 감시하는 이유는?

- (     ) ① 공산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 (     ) ② 각종 범죄 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 (     ) ③ 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 (     ) ④ 자유를 찾아 망명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10.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 (     ) 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     ) ②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본다
- (     ) ③ 인간은 존엄하고 고귀하다고 본다

( ) ④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보나 개성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11. 북한의 정치 현실은?

( ) ① '최고 인민 회의'에 의한 독재 정치

( ) ② '노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 정치

( ) ③ 김일성에 의한 일인 독재 정치

( ) ④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2. 김일성 우상화 정도는?

( ) ① 김일성의 초상화나 동상건립 정도이다

( ) ② 김일성은 거의 초인적인 존재로 신격화 되고 있다

( ) ③ 북한의 정치 문제와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 ) ④ 우상화 작업은 김일성 개인에게만 한정되고 있다

13. 북한의 경제 현실은?

( ) ① 의·식·주 문제 해결이 어려울 정도이다

( ) ② 남한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 ) ③ 북한은 외국차관을 도입한 일이 없다

( ) ④ 중공업과 함께 소비재 공업도 중시하고 있다

14.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란?

( ) ① 군사력 증강을 위한 운동

( ) ② 체육 강화를 위한 운동

( ) ③ 주민 통제를 위한 운동

( ) ④ 노동력 착취를 위한 운동

15. 북한의 교육 목표는?

( ) ① 숙련 노동자의 양성

( ) ② 노동력 동원을 위한 교육

( ) ③ 공산주의적 인간의 형성

( ) ④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발휘

16. 우리 나라가 통일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 ) ① 단일 민족이기 때문

( ) ② 국제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

( ) ③ 이산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

( ) ④ 정치적 안정 때문

17. 남북 통일의 저해 요인은?

( ) ① 남·북의 사상적 대립

( ) ② 미·일·소·중 등의 이해 관계

( ) ③ 사대주의 사상

( ) ④ 북한 공산 집단의 무성의

18.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통일 방안은?

( ) ① 실력행사(무력)를 통한 방법

( ) ② 남북대화를 통한 단계적 방법

( ) ③ 정치 및 경제 발전을 통한 방법

( ) ④ 국제 정치 역량을 통한 방법

19.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담당자는?

( ) ① 정부가 해야 한다

( ) ② 군인이 해야 한다

( ) ③ 대학 교수가 해야 한다

( ) ④ 일반 국민이 해야 한다

20. 평화통일을 위한 선행 조건은?

( ) ① 남·북이 인구를 같게 해야 한다

( ) ② 군대를 해산 해야 한다

( ) ③ 신뢰를 회복하고 동질성을 찾아야 한다

( ) ④ 경제 수준을 같게 해야 한다

21. 북한 공산 집단이 말하는 '평화통일'의 의미는?

( ) ①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남북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 ) ② 우리가 제시하는 통일방법과 같다

( ) ③ 폭력 혁명에 의한 통일방법을 말한다

( ) ④ 대규모 전쟁에 의한 통일방법을 말한다

22. 안보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 ) ① 국토 통일을 하자는 것

( ) ② 군사력을 증강하자는 것

( ) ③ 반공 정신을 확고히 하자는 것

( ) ④ 국토는 물론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 하자는 것

23. 북한의 '3대혁명 역량의 강화' 및 '4대군사노선'이 의미하는 것은?

( ) ① 김일성 위상을 위한 것

( ) ② 공산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

( ) ③ 공산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이다

( ) ④ 북한 공산 집단이 남침 준비 강화를 위한 것

24.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과정으로 보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 ) ① 자주 국방 태세 확립

( ) ② 유우엔 외교 활동 강화

( ) ③ 미국과의 방위조약 확인

( ) ④ 공상권과의 외교 추진

25. 남·북 군사력을 비교할 때 우세한 쪽은?

( ) ① 남한 우세

( ) ② 북한 우세

( ) ③ 남북 대등



( ) ④ 모르겠다

26. 북한 공산 집단이 남침시 중공과 소련의 태도는?

( ) ① 양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적극 도울 것이다

( ) ② 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도울 것이다

( ) ③ 중공은 군사적인면, 소련은 경제적인 면에서 도울 것이다

( ) ④ 중공은 경제적인면, 소련은 군사적인 면에서 도울 것이다

27. 북한의 정치 현실은?

( ) ① '최고 인민 회의'에 의한 독재 정치

( ) ② '노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 정치

( ) ③ 김일성에 의한 일인 독재 정치

( ) ④ 김일성의 후계자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에 ○표해 주십시오.

( 28 ~ 49 )

문 제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28. 공산주의는 우리 민족 전통에 맞지 않 기 때문에 좋지 않다.					
29. 공산국가들이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 기 분이 나쁘다.					
30.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북한의 청소년을 생각하면 가엾다.					
31. 북한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보다 잘 살 수는 없을 것이다.					
32. 모든 상황을 판단해 보면 통일의 시기 가 앞당겨 질 것 같다.					
33. 통일이 되면 남·북한 주민의 융합의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34. 남북한 간에 문화·스포츠·서신·방문 등의 교류를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 겠다.					
35.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투철 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36. 언젠가는 북한 공산 집단이 재차 남침 을 감행 해 올 것이다.					
37.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도 핵무기를 보 유 했으면 좋겠다.					
38.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방위 공약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제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39 . 공산주의 체제보다 민주주의 체제가 더 살기 좋다.					
40 .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항상 경 계하고 있다.					
41 . 어떤 좋은 조건이라 해도 북한공산 치 하에서는 살지 않겠다.					
42 .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43 . 북한 공산집단이 선전하는 것처럼 북 한 사회가 ‘지상낙원’ 이라고는 전 혀 믿지 않는다.					
44 . 나는 공산 집단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 의 허구성을 비판할 수 있다.					
45 . 조국 통일은 어떠한 희생을 치루고라 도 이룩되어야 한다.					
46 . 우리의 주장에 의한 통일이 아니면 지 금 이대로 있는 편이 낫다.					
47 . 북한 공산집단 남침시 우리나라는 이 를 막아낼 힘이 충분히 있다.					
48 . 나는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일으키 면 즉각 참여하여 싸우겠다.					
49 . 공산 국가들이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

## Abstract

### A Study on Unification-Security-Consciousness of the Middle-High School Students in Jeju-do

Kim Chi-Hong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ung-June*

The primary aims of this study are to exclusively grasp the consciousness that middle-high school students hold on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security, through the survey and analysis the consciousness on it they hold, and to serve as the fundamental material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on it in middle-high school.

In this connection I had understood a trend about the consciousness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security, through the analysis of contents in the textbooks of Morality and National ethics in middle-high school, and consultation of contents in studies precedent with consciousness on it, and then made the model of concept on the consciousness of it based on the theory of attitude construction. In the level of behaviour the model of concept is classified into cognition, affection and will, and in the level of contents it is classified into Communism, North Korea, National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Collection of questionnaire was conducted in the way of single-stage-cluster design through cluster sampling. By this way 1,742 students'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but 1,254 students were actually examined in this investigation.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42 entries for answer and these entries were measured by closed questions and Likert type. Collected materials were analyzed with only arithmetical mean (M) in closed questions, and arithmetical mean (M), percentage (%) and  $X^2$  verification in Likert type.

As a result, statistics show that every level of cognition middle-high school students hold on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Security is relatively high, but every level of affection and will is low, compared with that of cogniti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3.

Above all, each level of cognition on National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is relatively low, with each one of Cognition on Communism and North Korea, and this situation is notably showed in each one of affection and will on National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For these reasons, in improving Consciousness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Security, of each level of Communism and North Korea the instruction should be taken with education to change value and attitude. But, of each level of National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education should be required cramming education, not to do education to change value and attitude.

